

발간번호  
202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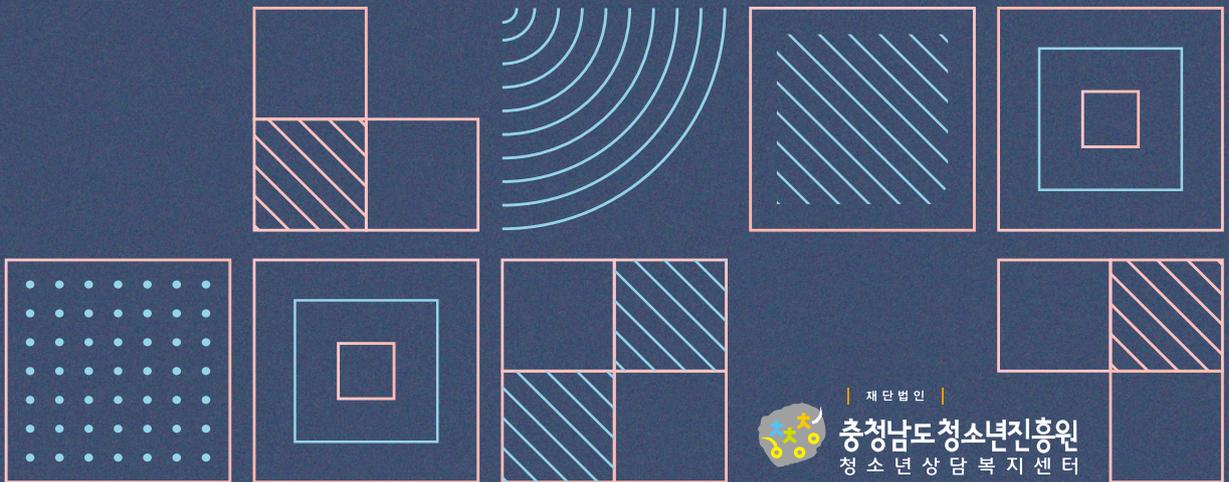


2020년 청소년정책 연구조사

# 충청남도 청소년비행 태도에 관한 연구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20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미션** | 청소년의 행복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성장 플랫폼

**비전** |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는 청소년 전문기관



**베풀 설, 위로할 래, 맡을 임**의 한자 뜻을 담아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충남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베풀고 위로하는 일을 맡는 상담센터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베풀고 위로하는 일을 맡는 것"에 우리가 더 설렌다는 의미와 결합하여

**설<sub>H</sub>임**이 탄생하였습니다.

설 設 : 베풀다

래 來 : 위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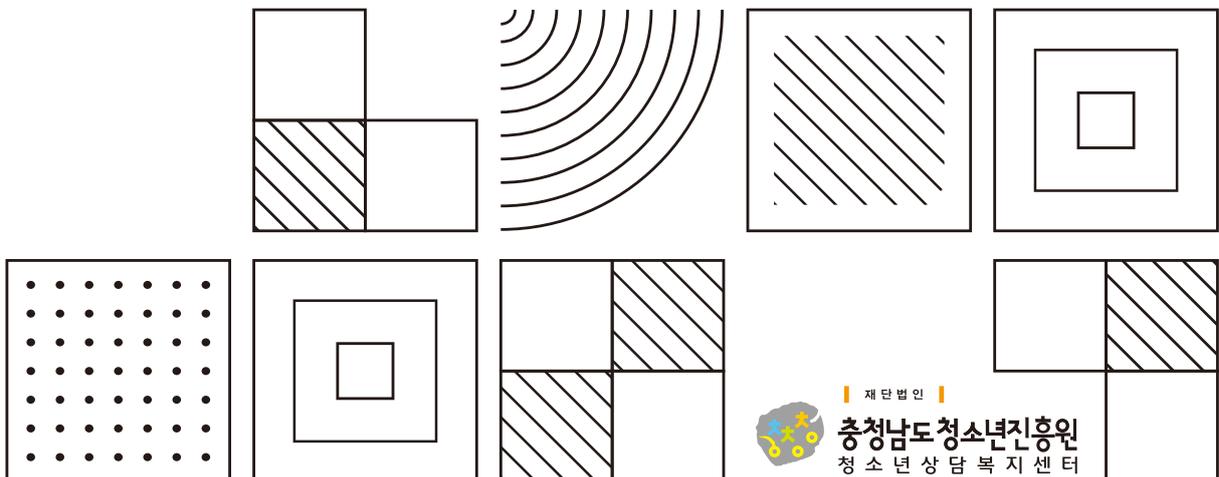
임 任 : 맡다

2020년 청소년정책 연구조사

# 충청남도 청소년비행 태도에 관한 연구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목 차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과제.....4

## II. 이론적배경

1. 청소년비행.....5
2. 청소년비행 태도.....6
3. 청소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7

##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12
2. 연구방법.....12
3. 측정도구.....13

## IV. 연구결과.....17

## V. 결론 및 제언.....92

## [ 참고문헌 ]



## < 표 목 차 >

<표 1> 청소년비행 유형 분류표.....	13
<표 2> 청소년비행 유형구분에 따른 조사문항.....	14
<표 3> 청소년 위험요인.....	16
<표 4> 청소년 보호요인.....	16
<표 5> 성별 분포.....	17
<표 6> 연령별 분포.....	18
<표 7> 소속기관별 분포.....	19
<표 8> 거주지역별 분포.....	20
<표 9> 거주인별 분포.....	21
<표 10>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	22
<표 11>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23
<표 12> 지위비행 수준별 분포.....	24
<표 13> 범법행동 수준별 분포.....	25
<표 14> 사이버사기 수준별 분포.....	26
<표 15> 사이버폭력 수준별 분포.....	27
<표 16> 성별 비행태도 수준.....	28
<표 17> 소속기관별 비행태도 수준.....	29
<표 18> 연령별 비행태도 수준.....	31
<표 19> 거주인별 비행태도 수준.....	33
<표 20> 경제수준별 비행태도 수준.....	35
<표 21> 위험요인 수준.....	37
<표 22> 성별 위험요인 수준.....	38
<표 23>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	39
<표 24> 연령별 위험요인 수준.....	42
<표 25> 거주인별 위험요인 수준.....	45
<표 26> 경제수준별 위험요인 수준.....	47
<표 27>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49
<표 28> 성별 보호요인 수준.....	50
<표 29> 소속기관별 보호요인 수준.....	51
<표 30> 연령별 보호요인 수준.....	53
<표 31> 거주인별 보호요인 수준.....	55
<표 32> 경제수준별 보호요인 수준.....	57
<표 33> 연령 및 경제수준과 비행태도, 위험 및 보호요인 수준.....	59
<표 34>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	60

<표 35>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의한 이유.....	62
<표 36>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비동의한 이유.....	64
<표 37>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	66
<표 38>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동의한 이유.....	68
<표 39>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72
<표 40> 위험 및 보호요인과 비행태도 집단 구분.....	75
<표 41>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지위비행 간 관계(교차분석).....	76
<표 42> 위험요인과 지위비행 간 관계(교차분석).....	76
<표 43> 보호요인과 지위비행 간 관계(교차분석).....	77
<표 44> 지위비행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78
<표 45>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범법행동 간 관계(교차분석).....	80
<표 46> 위험 요인과 범법행동 간 관계(교차분석).....	80
<표 47> 보호 요인과 범법행동 간 관계(교차분석).....	81
<표 48> 범법행동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82
<표 49>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이버사기 간 관계(교차분석).....	83
<표 50> 위험 요인과 사이버사기 간 관계(교차분석).....	84
<표 51> 보호 요인과 사이버사기 간 관계(교차분석).....	85
<표 52> 사이버사기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86
<표 53>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이버폭력 간 관계(교차분석).....	88
<표 54> 위험 요인과 사이버폭력 간 관계(교차분석).....	88
<표 55> 보호 요인과 사이버폭력 간 관계(교차분석).....	89
<표 56> 사이버폭력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90

## < 그림 목 차 >

<그림 1> 연구조사 흐름도.....	11
<그림 2> 성별 분포.....	17
<그림 3> 연령별 분포.....	18
<그림 4> 소속기관별 분포.....	19
<그림 5> 거주지역별 분포.....	20
<그림 6> 거주인별 분포.....	21
<그림 7> 가정의 경제수준별 분포.....	22
<그림 8>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23
<그림 9> 지위비행 수준별 분포.....	24
<그림 10> 범법행동 수준별 분포.....	25
<그림 11> 사이버사기 수준별 분포.....	26
<그림 12> 사이버폭력 수준별 분포.....	27
<그림 13> 성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28
<그림 14> 소속기관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30
<그림 15> 연령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32
<그림 16> 거주인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34
<그림 17> 경제수준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36
<그림 18>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37
<그림 19> 성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39
<그림 20>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41
<그림 21> 연령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44
<그림 22> 거주인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46
<그림 23> 경제수준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48
<그림 24>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49
<그림 25> 성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50
<그림 26> 소속기관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52
<그림 27> 연령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54
<그림 28> 거주인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56
<그림 29> 경제수준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58
<그림 30>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별 분포.....	61
<그림 31>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의견.....	61
<그림 3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별 분포.....	67
<그림 3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의견.....	67



# I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비행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균형이나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반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비행의 근절과 문제발생 예방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비행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아닌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행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완화하여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행청소년을 재활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청소년비행이 단순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표류적 현상(drift)이 아니라, 성인기의 범죄행동, 알코올 중독, 반사회적 성격, 분노조절장애, 직장 및 결혼생활 부적응과 같은 역기능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진혜민 외, 2012; 민수홍, 2006)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잘 이루어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하지만, 일부 청소년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부정적 사고방식과 역기능적 심리기제를 습득하여 부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천정웅 외, 2012), 이들은 가정과 학교의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학교성적과 입시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치관의 혼란과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문제,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문제와 갈등과 같은 상황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자아정체감이 결여되거나 욕구불만과 갈등으로 일탈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행동이 발생하게 된다.(김준호 외, 2018)

2020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9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7명(6.7%)은 최근 30일 내 흡연한 적이 있으며, 100명 중 15명(15.0%)은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초(4~6)·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3.5%로 가출 후 성매매나 집단폭력과 관련된 2차 범죄로의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8년 초·중·고생의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은 39.4%이며,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사이버폭력 경험률도 32.8%로 2017년 대비 6.8% 상승했다.(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

청소년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sup>1)</sup>가 40.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강력(폭력)<sup>2)</sup> 범죄 29.8%, 강력(흉악)<sup>3)</sup> 범죄 5.3%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2017년 전체 소년 범죄자의 인구비는 감소하였지만,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비행의 수준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 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비행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태도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나는 촉법소년<sup>4)</sup> 이니까 걸려도 문제가 없다.” '박사방',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성(性) 착취 영상물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은 청소년의 태도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서 최장 2년만 지내다 나오면 되고, 그에 따른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채팅방의 소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디스코드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로 검거된 A군 역시 12세,

---

1)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

2) 공갈, 폭행·상해 등

3)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4)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이었다. 청소년들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90.4%에 육박하고 있다.(범죄백서, 2019) 소년법과 관련해서는 2017년 9월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10월, 11월, 4차례에 걸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현재도 끊임 없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기 일탈과 비행의 문제는 학업 및 교우관계의 형성 등 청소년기 고유의 성장기적 과업의 성취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약물, 음주, 흡연, 고위험 성행동 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피해를 받게 된다. 청소년기 비행이 폭력,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연결될 경우 사회로부터의 격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부정적인 문제를 낳게 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청소년비행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이 소속된 사회 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빈부격차 등과 연관되어 있다. 근래의 청소년 비행의 특징은 폭력화, 저연령화, 죄의식의 결여, 비행동기 없음, 재범률의 증가, 학생비행의 증가, 잔혹화, 여자청소년비행의 증가, 성비행의 증가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청소년의 사회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 요인 등에서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존감(김경식 외, 2007)과 우울·공격성(이혜은 외, 2008), 성별의 차이(민무숙외, 1999; 송지영 외, 2010), 자기통제력(Gottfredson & Hirschi, 1990; 이성식, 2011; 허균, 2012; 이성대 외, 2013; 송지영 외, 2010)등이 있다. 사회환경적인 영향을 비행의 원인으로 본 Merton(1938)은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긴장(strain)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며, Agnew(1992)는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가족구조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준호 외, 1995; 하영희 외, 2003).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많은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전략의 미흡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발달과정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어떤 청소년들은 위험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비행으로 연결되고,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으로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요인인 보호요인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이 있어 청소년 비행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복합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해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비행태도 파악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과제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성별, 나이(학년), 소속, 지역, 보호자, 경제수준) 비행항목에 대한 청소년비행 태도 수준
- 나. 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청소년비행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다. 청소년의 보호요인이 청소년비행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파악
- 마.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파악

## II . 이론적배경

### 1. 청소년비행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은 청소년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률적으로 범죄적 비행(index offenses)과 청소년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인 지위비행(status offens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적 비행은 주거침입, 절도 등의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경한 비행이지만 중한 범죄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사소한 절도, 폭행, 기타 법위반 행위들로 형벌 법규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청소년이 행한 경우이며,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 행하였을 때는 청소년이라는 지위때문에 문제가 되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성경험 등을 가리킨다(김준호 외, 1995; 노성호, 2006).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부터 갈취, 절도, 폭행 등 법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성인의 범죄(crime)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행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행위 등은 범죄행위이며 중비행이라고도 한다(노연경 외, 2014).

우리나라의 법적인 개념에서의 비행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에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째, ‘범죄소년’은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으로 형사법령을 위반하고 형사책임이 있는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둘째, ‘촉법소년’<sup>1)</sup>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없이 보

호처분만 가능하다. 셋째, ‘우범소년’은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형사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으로 형사처분 없이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정누리, 2019)

## 2. 청소년비행 태도

‘태도’의 사전적의미를 살펴보면 ①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②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③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 태도를 ‘청소년이 비행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한 비행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입장’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청소년 개인의 내면에 비행 발생 가능성 유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습한 비행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비행의 원인이라고 말한다(김준호 등, 2013). 즉, 비행에 호의적인 생각과 태도를 많이 학습하면 그만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행에 관한 생각과 태도가 학습되는 과정에 대해 서덜랜드(Sutherland)는 주위 사람들과의 교제를 강조했고(차별접촉), 에이커스(Akers)는 과거 비행의 보상경험(차별강화), 모범으로 삼은 사람을 따라하기(모방)의 과정도 비행에 호의적인 생각과 태도를 배우는 방식이라고 보았다(박상기 외, 2004).

비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비행에 대한 태도에 따라 비행에 가담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비행을 해도 된다거나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은 비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비행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Hirschi, 1969; 김준호 외, 2018).

### 3. 청소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위험요인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성이나 변인을 말하는 것으로(Pollard et al., 1999; 유영준, 오윤수, 2013 재인용)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위기결과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Garmezy(1990)는 위험요인이라는 일반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orowitz(1987)는 인간의 타고난 특성이 환경적 질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발달모형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또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Bronfenbrenner(1979) 역시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생태학적 이론을 통해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이 상호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Lerner(1991)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들의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국내외 연구자들도 위험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와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강근모, 이준기, 2015; 김보영, 이정숙, 2009; 오승환, 2010; 이상균, 2000; 전영천, 2010; 정묘순,

서수균, 2014; 진혜민, 배성우, 2012; 황혜원 등, 2006; Garnezy, 1990). 개인 수준의 위험요인 중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것은 우울과 공격적 행동, 충동성, 낮은 자존감 등이다. 이 중 우울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최대의 변인(강혜원, 김영희, 2011; 이해경, 2002; 곽금주, 문은영, 1993)이며, 청소년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민원홍, 2013; 이혜순, 옥지원, 2012; 이석형, 2007). 또한 자살이나(김보영, 이정숙, 2009), 가출의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한다(강근모, 이준기, 2015).

Johnson(1997)은 위기청소년의 가족위험요인으로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부모의 지도감독 부족, 부모의 교육적 지지와 개입의 결여,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학교 중퇴한 형제, 이주가정, 가정폭력을 들었다(배주미 등, 2010 재인용). 특히 갈등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위험요인이며(이주리, 2011; 이석형, 2008), 부부갈등,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 역시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진혜민 등, 2012).

또래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면 학업중단을 하거나(김옥엽 등, 2004), 범죄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다(한종철, 김인경, 2000).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소외되면서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 심지어 자살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이해경, 김혜원, 2001).

또한 청소년들은 주변의 친한 친구가 비행을 할 경우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2003).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학교애착과 학교몰입을 방해하여 청소년 학업과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하고, 수업 시간이나 과제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학업성취의 하락을 가져오

게 된다(정익중, 2009). 또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비행과 폭력 행동에 더 많이 관련되었다(김동일, 최수미, 2009 재인용)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의 위험을 높인다(김보영, 이정숙, 2009).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 지역사회가 빈곤 등 물리적 측면에서 낙후되거나 범죄 등 위기행동이 가능한 유해한 환경일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한다(강석영 등, 2009; 김순규, 2008).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나 낮은 사회적 유대감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비행을 학습하게 되고(진혜민 등, 2012), 이는 청소년을 위기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에게는 문제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위기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도 있다. 보호요인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인으로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권재환, 이은희, 2006; 한상철, 2008). 보호요인 역시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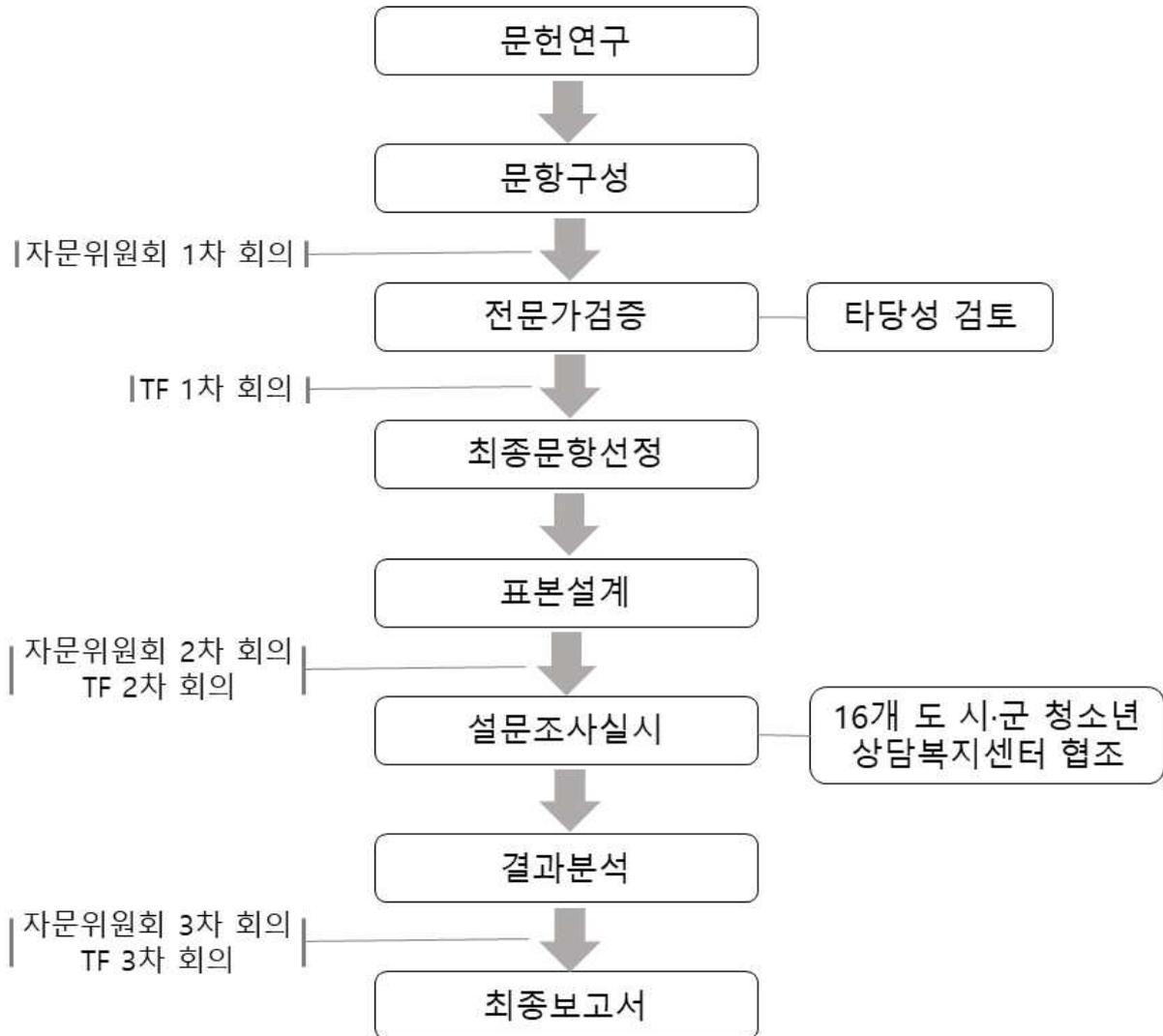
먼저, 개인적 차원의 보호요인은 위기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서, 심리적 요인과 유능감 등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비행을 유발하는 충동과 불안 등의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할 수 있고 과제해결에 자신감이 높으며, 대인관계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높아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한상철, 2008). 이 외에도 적극적인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등이 청소년의 적응을 도와(유인선, 2011) 자살, 가출 등의 생각을 억제한다(문동규, 김영희, 2012).

가족보호요인으로는 원만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 양육태도 등을 주요 보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구본용, 유제민, 2003). Blum(1998)은 성격, 가족, 환경 요인의 3가지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어 위기청소년을 설명하였는데, 이 중 가족요인으로 부모와의 유대감, 가족유대(cohesion), 가족구조, 형제 친밀감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중 친구의 지지는 학업 스트레스, 교사나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석영 등, 2009). 그리고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다. 사회적지지 또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유인선, 2011). 종교나 지역사회 운동팀과 같은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참여 역시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 심리적, 가족, 환경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청소년은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부정적 변인으로 작용하여 Burt 외(1992)가 위기청소년의 고위기 수준으로 제시한 문제행동이나 위기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비행친구와의 어울림, 빈번한 무단결석, 폭력, 자살충동 및 시도, 성매매 등의 문제행동(risk behaviors)이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하여 성장에 명백히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출, 범죄, 학업중단, 자살 등의 위기결과(risk outcomes)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진행 과정에서도 보호요인이 작용하면 청소년이 문제행동이나 위기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정상발달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 III. 연구방법



<그림 1> 연구조사 흐름도

청소년 비행 태도를 청소년이 비행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한 비행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비행을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으로 구분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Ⅷ의 분류표를 이용하여 각 유형별 태도 문항을 구성하고 사이버 폭력의 디지털 성범죄 문항을 추가 구성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

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과 청소년 흉악범죄(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11세~19세 청소년 5,6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표적인 청소년기 연령(14세~19세)보다 비행을 경험하고 있는 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있어 11세(초등4학년)부터의 연령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각 시·군별 해당연령의 청소년인구 수를 고려하여 조사인원을 할당하고 설문지를 배분하였고 각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1세~19세 청소년 대상을 임의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별, 가족형태, 소속집단, 경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위험요인, 보호요인들 중에서 조사 대상 청소년의 비행태도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선 연속 변인인 예측 요인들은 범주 변인으로 변환하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 집단 평균을 활용하여 하위 35%, 65%, 100% 비율로 구분되는 기준점수를 산출한 후, 기준점수를 바탕으로 낮은, 중간,

높은 비행태도, 위험요인, 보호요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에 따른 사례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예측 요인들은 최종 회귀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 3. 측정도구

#### ① 청소년비행 태도 척도

청소년비행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기초분석보고서 I’의 청소년비행 유형 분류를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이버 폭력에 최근 이슈화되고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항을 추가 구성하여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표 1> 청소년비행 유형 분류표

구 분	개념정의
비행	형벌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금지된 행동
현실비행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적인 현실의 생활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
지위비행	청소년이라는 신분 특성상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
범법행동	형벌 법령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
사이버비행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
사이버 사기	가상현실 공간에서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
사이버 폭력	가상현실 공간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공격적 행동

청소년비행 태도 문항으로는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을 포함한 현실비행과, 사이버 사기,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사이버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지위비행은 청소년(미성년)이라는 신분 특성상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의미하며, 범법행동은

소년범죄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비행의 형태 중에서 지위비행에 속하지는 않지만, ‘범죄’로 단정할 수 없는 행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지위비행은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범법행동은 집단따돌림, 심한놀림/조롱, 패싸움, 구타, 협박, 갈취, 절도, 성폭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이버비행의 사이버 사기는 허위정보유포, 아이디도용, 신분속임, 불법SW 다운로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사이버 폭력은 욕설/폭언, 해킹,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1 절대 해서는 안된다; 2 해서는 안 된다; 3 할 수 있다; 4 당연히 할 수 있다”)로 구성 하였다. 분석시에는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표 2> 청소년비행 유형구분에 따른 조사문항

비행유형		비행항목	조사문항내용
현 실 비 행	지 위 비 행	흡연	담배피우기
		음주	술 마시기(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 마시는 정도는 제외)
		무단결석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
		가출	가출(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 경우)
		성관계	성관계
	범 법 행 동	집단따돌림	다른 사람을 집단 따돌림(왕따)
		심한놀림/조롱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패싸움	패싸움
		구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협박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
		갈취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
		절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폭력	성폭행이나 성희롱 하기

사이버비행	사이버사기	허위정보유포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아이디도용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기
		신분속임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불법SW 다운로드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사이버폭력	욕설/폭언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해킹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디지털성범죄	채팅/게시판 등에서 성적인 말이나 글쓰기

② 의식조사문항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중 소년법 개정(촉법소년 연령 하향), 청소년 흉악범죄(성폭력)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을 알아보고자 의식조사 문항을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아니다; 4 매우 아니다)로 구성하였다. 문항 중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문항은 ‘촉법소년’에 대한 개념의 이해 수준 차이를 고려해 문항 내에 촉법소년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또한 문항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수기로 그 이유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③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황순길 외, 2016)의 청소년 위험요인, 보호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위험요인 영역은 크게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였고, 하위요인들은 우울·불안(8문항), 공격성·충동성·부주의(8문항),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6문항), 부모간 갈등(2문항), 문제가족원(3문항), 비행친구(4문항), 학교생활 부적응(4문항), 지역사회 유해환경(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청소년 위험요인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개인	우울·불안	8
	공격성·충동성·부주의	8
가정	부모와의 갈등 관계·방임	6
	부모 간 갈등	2
	문제 가족원	3
또래	비행친구	4
학교	학교생활부적응	4
지역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3
<b>총 문항 수</b>		<b>38</b>

보호요인 영역은 위험요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하위요인들로는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5문항), 가족의 관심 및 신뢰(3문항), 친구관계(2문항), 교사의 관심 및 관계(2문항), 지지체계(3문항)로 구성되었다.

<표 4> 청소년 보호요인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대처	5
가정	가족의 관심 및 신뢰	3
또래	친구관계	2
학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2
지역사회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3
<b>총 문항 수</b>		<b>15</b>

## IV. 연구결과

### 1. 전체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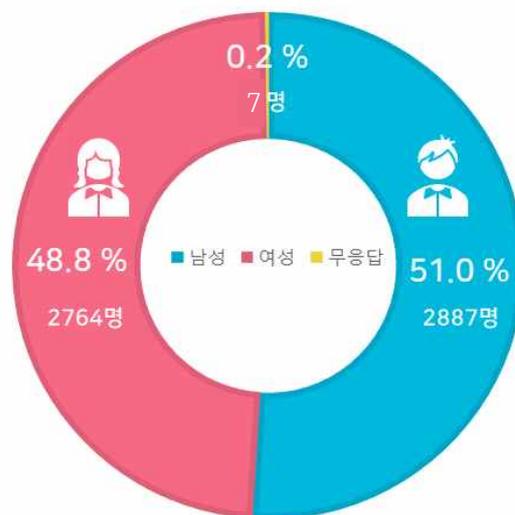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1세~19세 청소년 총 5,65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태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성별 구분

총 조사대상 중 남자 청소년은 51.0%였으며, 여자 청소년은 48.8%였다.

<표 5> 성별 분포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남 성	2,887	51.0
여 성	2,764	48.8
무응답	7	.2
합 계	5,658	100.0



<그림 2> 성별 분포

## 나. 연령별 구분

조사대상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4세 청소년이 1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세(16.0%)와 17세(14.6%) 순으로 많았다.

<표 6> 연령별 분포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11세	55	1.0
12세	441	7.8
13세	530	9.4
14세	1,036	18.3
15세	684	12.1
16세	908	16.0
17세	825	14.6
18세	574	10.1
19세	605	10.7
합 계	5,658	100.0



<그림 3> 연령별 분포

다. 소속기관별 구분

조사대상 중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4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7.6%, 초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7.9%,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7.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3은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소속기관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표 7> 소속기관별 분포

구분	사례수(명)	구성비(%)
초등학교	1,014	17.9
중학교	2,593	45.8
인문계고등학교	1,561	27.6
전문계고등학교	399	7.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9	0.5
검정고시/학교에 다니지 않음	3	0.1
해당없음	13	0.2
무응답	46	0.8
합계	5,658	100.0



<그림 4> 소속기관별 분포

라. 현 거주지역별 구분

조사대상 청소년들을 지역별로 비례하여 본 결과 천안시 지역의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49.5%), 다음으로는 아산시(12.7%), 당진시(6.3%), 보령시(5.2%) 였고, 이외 지역에서는 5% 미만의 대상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1-1은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거주지역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표 8> 거주지역별 분포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천 안 시	2,801	49.5
공 주 시	209	3.7
보 령 시	293	5.2
아 산 시	720	12.7
서 산 시	259	4.6
논 산 시	183	3.2
계 룡 시	108	1.9
당 진 시	354	6.3
금 산 군	107	1.9
부 여 군	108	1.9
서 천 군	87	1.5
청 양 군	89	1.6
홍 성 군	155	2.7
예 산 군	101	1.8
태 안 군	80	1.4
무 응 답	4	0.1
합 계	5,658	100.0



<그림 5> 거주지역별 분포

#### 마. 거주인별 구분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함께 거주하는 대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양부모와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8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부모와 거주하고 있다는 청소년들이 12.0% 였다. 혼자 살고 있거나 청소년보호자, 친구나 선후배, 형제자매와만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3.5%, 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1.3%, 친척과만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 0.2% 순으로 높았다.

<표 9> 거주인별 분포

구분	사례수(명)	구성비(%)
양 부모	4,689	82.9
한 부모	680	12.0
조 부모	73	1.3
친 척	10	.2
혼자/청소년보호자/친구/선후배/형제자매/기타와 거주	197	3.5
무 응 답	9	.1
합 계	5,658	100.0



<그림 6> 거주인별 분포

### 바. 가정의 경제수준별 구분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고, ‘잘 사는 편이다’(‘매우 잘 사는 편’과 ‘비교적 잘 사는 편’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28.9%, ‘어려운 편이다’(‘어려움’, ‘매우 어려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

구분	사례수(명)	구성비(%)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20	5.7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312	23.2
보통이다	3,723	65.8
어려운 편이다	250	4.4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5
무응답	25	.5
합계	5,658	100.0



<그림 7> 가정의 경제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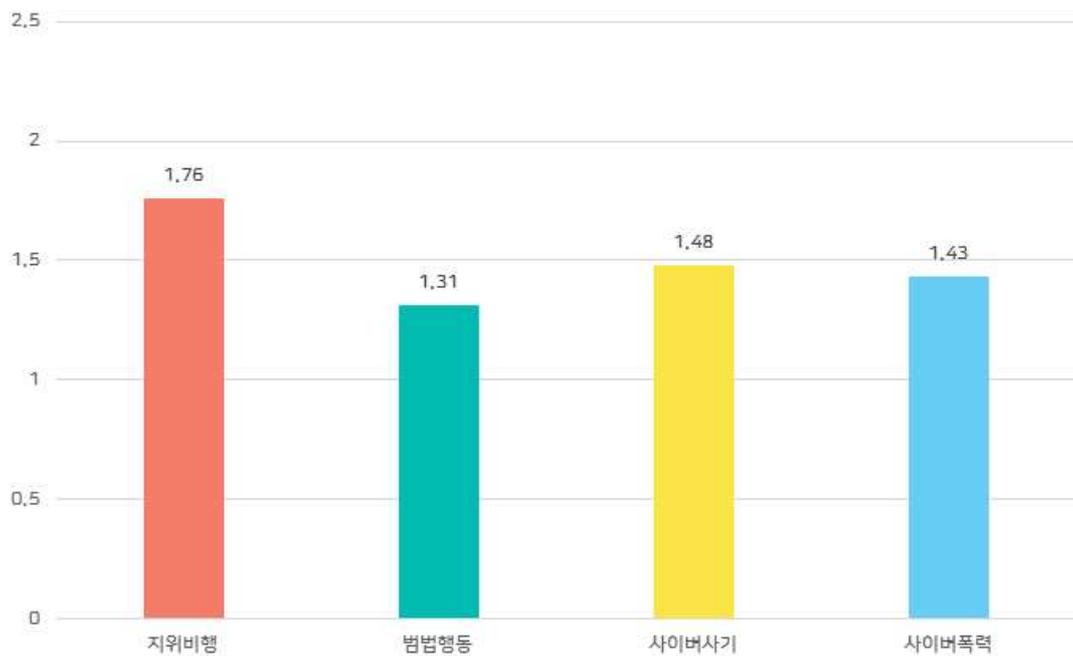
## 2. 청소년비행 태도

### 가. 비행태도 수준

조사 집단의 비행에 대한 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지위비행 평균이 1.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사기 평균 1.48점, 사이버폭력 평균 1.43점, 범법행동 평균 1.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지위비행	5,597	1.76	.62
범법행동	5,602	1.31	.43
사이버사기	5,618	1.48	.48
사이버폭력	5,621	1.43	.50



<그림 8>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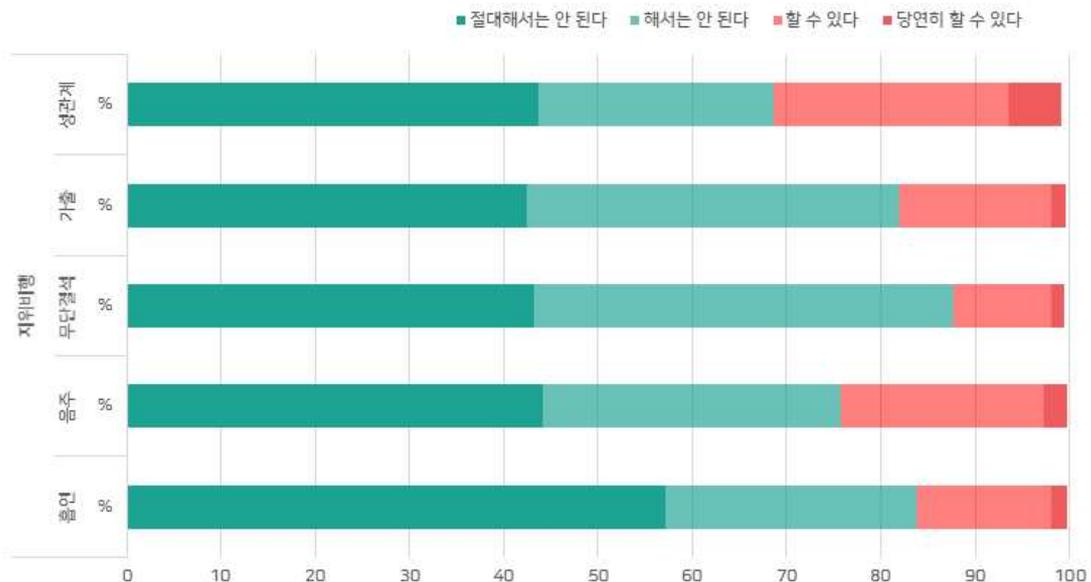
## 나. 지위비행 수준

조사 집단의 지위비행에 대한 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해서는 안 된다’(‘절대 해서는 안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 포함)가 ‘할 수 있다’(‘할 수 있다’와 ‘당연히 할 수 있다’ 포함)보다 높았다.

<표 12> 지위비행 수준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계
흡연	3,230(57.1)	1,513(26.7)	803(14.2)	95(1.7)	5,641(99.7)
음주	2,494(44.1)	1,795(31.7)	1,216(21.5)	135(2.4)	5,640(99.7)
무단결석	2,446(43.2)	2,521(44.5)	588(10.4)	79(1.4)	5,634(99.5)
가출	2,401(42.4)	2,239(39.6)	907(16.0)	90(1.6)	5,637(99.6)
성관계	2,470(43.6)	1,412(25.0)	1,415(25.0)	317(5.6)	5,614(99.2)



<그림 9> 지위비행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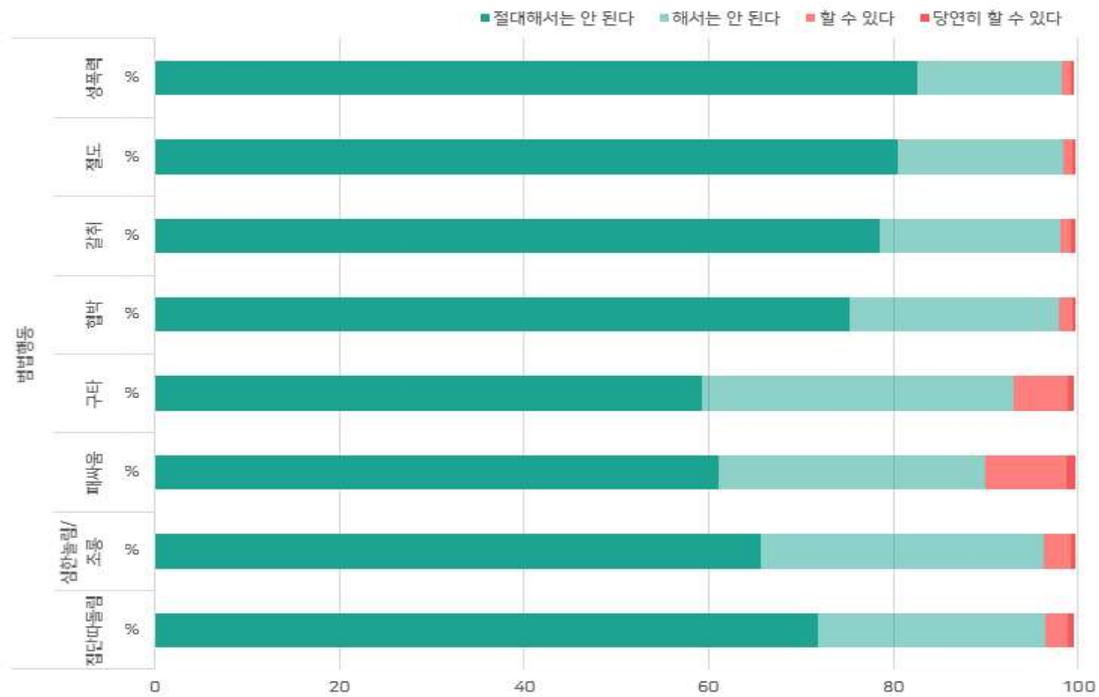
다. 범법행동 수준

조사 집단의 범법행위에 대한 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해서는 안 된다’(‘절대 해서는 안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 포함)가 ‘할 수 있다’(‘할 수 있다’와 ‘당연히 할 수 있다’ 포함)보다 높았다.

<표 13> 범법행동 수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절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계
집단따돌림	4,065(71.8)	1,395(24.7)	141(2.5)	26(0.5)	5,627(99.5)
심한놀림/조롱	3,711(65.6)	1,736(30.7)	168(3.0)	25(0.4)	5,640(99.7)
패싸움	3,456(61.1)	1,633(28.9)	495(8.7)	57(1.0)	5,641(99.7)
구타	3,353(59.3)	1,912(33.8)	336(5.9)	33(0.6)	5,634(99.6)
협박	4,253(75.2)	1,282(22.7)	84(1.5)	19(0.3)	5,638(99.7)
갈취	4,446(78.6)	1,106(19.5)	67(1.2)	23(0.4)	5,642(99.7)
절도	4,548(80.4)	1,018(18.0)	58(1.0)	18(0.3)	5,642(99.7)
성폭력	4,674(82.6)	888(15.7)	56(1.0)	19(0.3)	5,637(99.6)



<그림 10> 범법행동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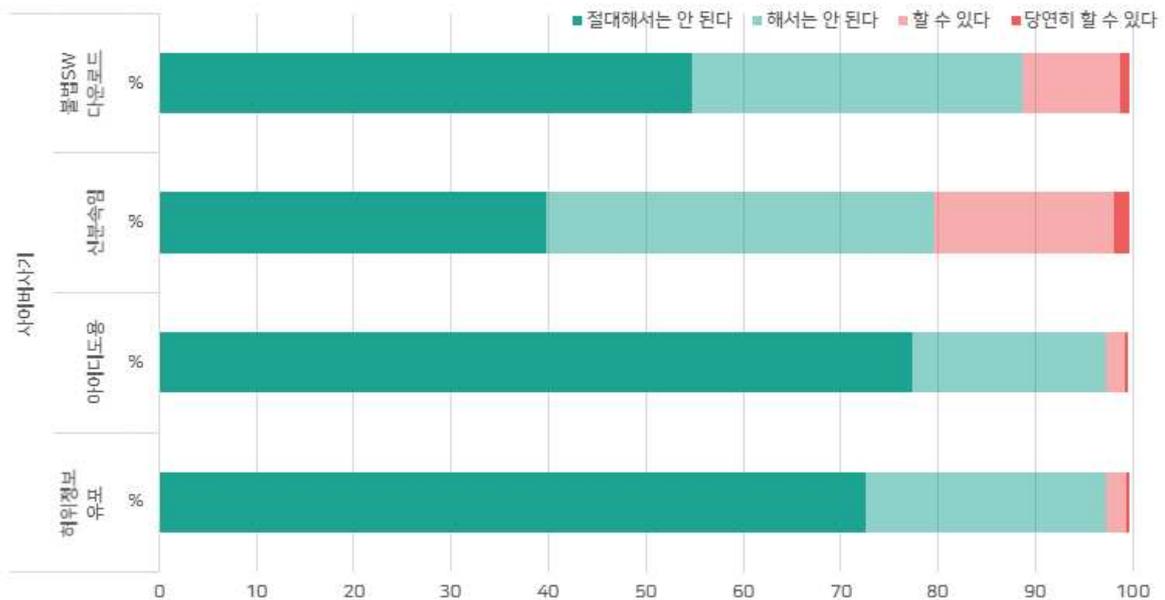
라. 사이버사기 수준

조사 집단의 사이버사기에 대한 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해서는 안 된다’(‘절대 해서는 안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 포함)가 ‘할 수 있다’(‘할 수 있다’와 ‘당연히 할 수 있다’ 포함)보다 높았다.

<표 14> 사이버사기 수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절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계
허위정보유포	4,107(72.6)	1,398(24.7)	112(2.0)	23(0.4)	5,640(99.7)
아이디도용	4,374(77.3)	1,128(19.9)	116(2.0)	17(0.3)	5,635(99.5)
신분속임	2,246(39.7)	2,250(39.8)	1,047(18.5)	90(1.6)	5,633(99.6)
불법SW 다운로드	3,095(54.7)	1,916(33.9)	566(10.0)	56(1.0)	5,633(99.6)



<그림 11> 사이버사기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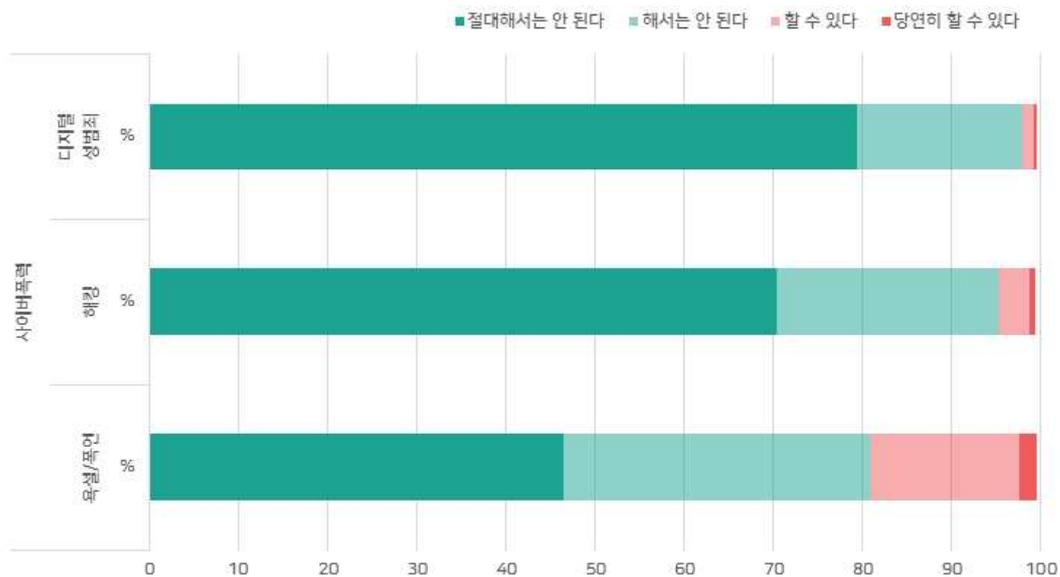
마. 사이버폭력 수준

조사 집단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해서는 안 된다’(‘절대 해서는 안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 포함)가 ‘할 수 있다’(‘할 수 있다’와 ‘당연히 할 수 있다’ 포함)보다 높았다.

<표 15> 사이버폭력 수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절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계
욕설/폭언	2,624(46.4)	1,950(34.5)	947(16.7)	111(2.0)	5,632(99.6)
해킹	3,986(70.4)	1,409(24.9)	194(3.4)	38(0.7)	5,627(99.4)
디지털성범죄	4,489(79.3)	1,053(18.6)	74(1.3)	18(0.3)	5,634(99.5)



<그림 12> 사이버폭력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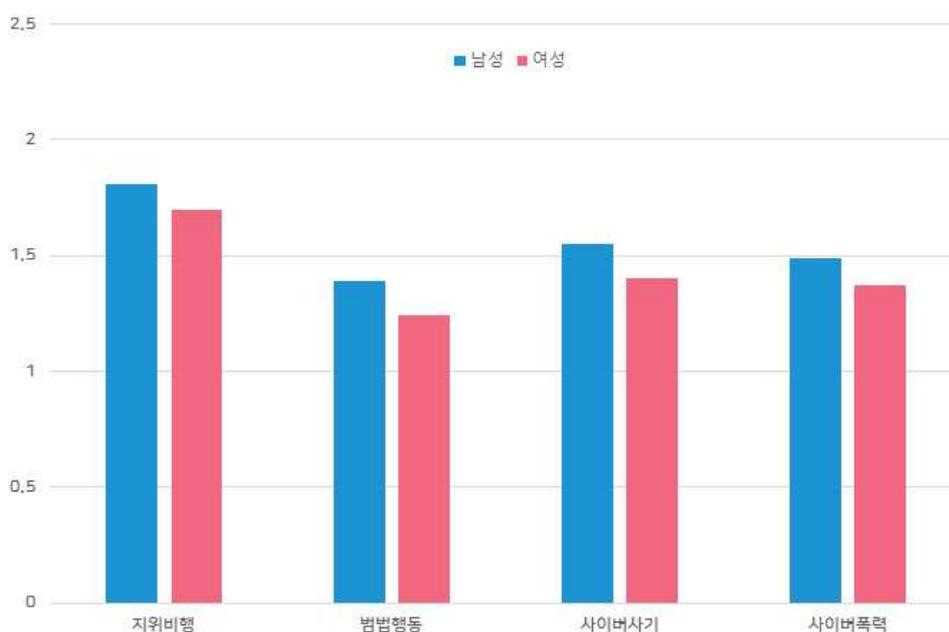
### 바. 성별 비행태도 수준

성별에 따른 비행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지위비행, 범법행동,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등 비행태도의 전 항목에서 남자청소년 평균이 여자청소년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지위비행의 경우 남자청소년 평균 1.81점, 여자청소년 평균 1.70점이었으며 범법행동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 1.39점, 여자청소년 평균 1.24점이었었다. 사이버사기의 경우 남자청소년 평균 1.55점, 여자청소년 평균 1.40점이었고, 사이버폭력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 1.49점, 여자청소년 평균 1.37점이었었다.

<표 16> 성별 비행태도 수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지위비행	남성	2,852	1.81	.66	6.28***
	여성	2,738	1.70	.58	
범법행동	남성	2,858	1.39	.48	12.90***
	여성	2,737	1.24	.36	
사이버사기	남성	2,862	1.55	.53	11.95***
	여성	2,749	1.40	.41	
사이버폭력	남성	2,863	1.49	.55	9.18***
	여성	2,751	1.37	.44	

\*\*\* p<.001 \*\*p<.01 \*p<.05



<그림 13> 성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사. 소속기관별 비행태도 수준

소속기관별 비행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지위비행, 범법행동,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등 비행태도의 전 항목에서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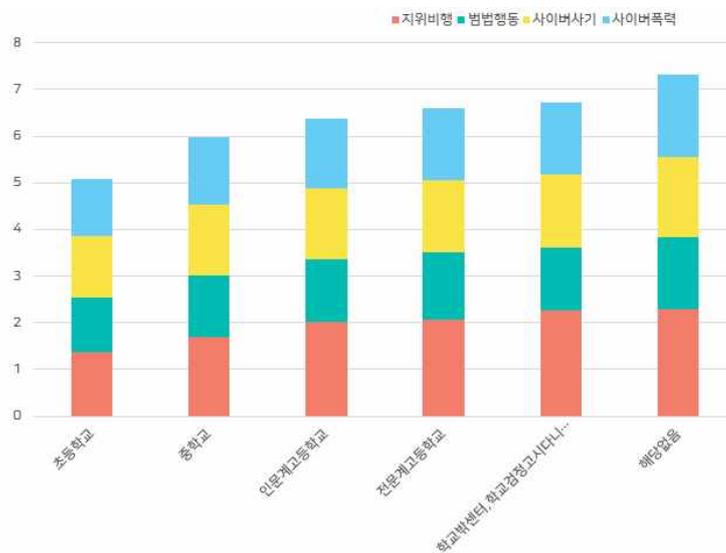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의 경우 해당없음의 평균이 2.28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거나 학교 또는 검정고시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평균이 2.26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2.07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2.02점, 중학교와 초등학교 소속 학생들의 평균이 각각 1.69점과 1.37점 순으로 높았다. 범법행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소속 평균이 1.44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거나 학교 또는 검정고시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1.34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과 중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의 평균이 둘 다 1.33점이었고, 초등학교 소속 평균이 1.18점 순으로 높았다. 사이버사기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73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거나 학교 또는 검정고시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1.57점, 전문계 고등학교 소속 평균이 1.54점, 인문계 고등학교 소속 평균이 1.52점, 중학교 소속 평균이 1.51점, 초등학교 소속 평균이 1.31점 순으로 높았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77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거나 학교 또는 검정고시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1.55점, 전문계 고등학교 소속 평균이 1.54점, 인문계 고등학교 소속 평균이 1.50점, 중학교 소속 평균이 1.45점, 초등학교 소속 평균이 1.21점 순으로 높았다.

<표 17> 소속기관별 비행태도 수준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지위비행	초등학교	990	1.37	.41	193.58***
	중학교	2,574	1.69	.58	
	인문계고등학교	1,560	2.02	.63	
	전문계고등학교	398	2.07	.7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 다니지 않음,	53	2.26	.69	
	해당없음	14	2.28	.80	
	합계	5,589	1.76	.62	

범법행동	초등학교	997	1.18	.30	28.10***
	중학교	2,578	1.33	.45	
	인문계고등학교	1,552	1.33	.43	
	전문계고등학교	399	1.44	.53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 다니지 않음	53	1.34	.40	
	해당없음	15	1.55	.83	
	합계	5,594	1.31	.43	
사이버 사기	초등학교	1,003	1.31	.36	29.93***
	중학교	2,581	1.51	.49	
	인문계고등학교	1,560	1.52	.49	
	전문계고등학교	398	1.54	.55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 다니지 않음	53	1.57	.57	
	해당없음	15	1.73	.80	
	합계	5610	1.48	.48	
사이버 폭력	초등학교	1008	1.21	.34	51.50***
	중학교	2579	1.45	.51	
	인문계고등학교	1559	1.50	.52	
	전문계고등학교	399	1.54	.57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 다니지 않음	53	1.55	.51	
	해당없음	15	1.77	.82	
	합계	5613	1.43	.50	

\*\*\* p<.001 \*\*p<.01 \*p<.05



<그림 14> 소속기관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아. 연령별 청소년 비행태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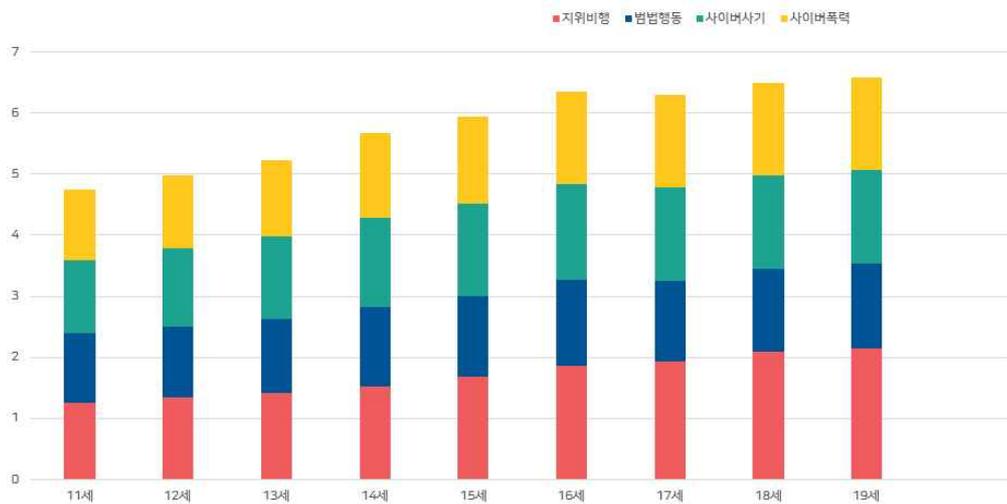
연령별 비행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지위비행, 범법행동,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등 비행태도의 전 항목에서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의 경우 19세 평균이 2.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위비행 수준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행동과 사이버사기 수준은 두 유형 모두 16세 평균이 1.41점, 1.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16세와 19세 평균이 1.52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18> 연령별 비행태도 수준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지위비행	11세	50	1.26	.34	151.37***
	12세	430	1.35	.38	
	13세	518	1.41	.43	
	14세	1,022	1.53	.50	
	15세	680	1.69	.56	
	16세	896	1.86	.62	
	17세	824	1.93	.63	
	18세	571	2.09	.66	
	19세	605	2.15	.64	
	합계	5,596	1.76	.62	
범법행동	11세	54	1.13	.28	20.20***
	12세	433	1.16	.26	
	13세	518	1.21	.33	
	14세	1,026	1.29	.40	
	15세	678	1.31	.41	
	16세	898	1.41	.51	
	17세	823	1.33	.45	
	18세	570	1.36	.46	
	19세	601	1.38	.48	
	합계	5,601	1.31	.43	

사이버사기	11세	55	1.20	.39	21.78***
	12세	438	1.28	.33	
	13세	518	1.36	.38	
	14세	1,024	1.46	.45	
	15세	680	1.51	.46	
	16세	901	1.56	.54	
	17세	824	1.52	.49	
	18세	573	1.53	.51	
	19세	604	1.53	.53	
	합계	5,617	1.48	.48	
사이버폭력	11세	55	1.15	.35	36.26***
	12세	440	1.18	.31	
	13세	521	1.25	.37	
	14세	1,025	1.40	.47	
	15세	680	1.43	.48	
	16세	898	1.52	.55	
	17세	824	1.51	.53	
	18세	573	1.51	.54	
	19세	604	1.52	.55	
	합계	5,620	1.43	.50	

\*\*\* p<.001 \*\*p<.01 \*p<.05



<그림 15> 연령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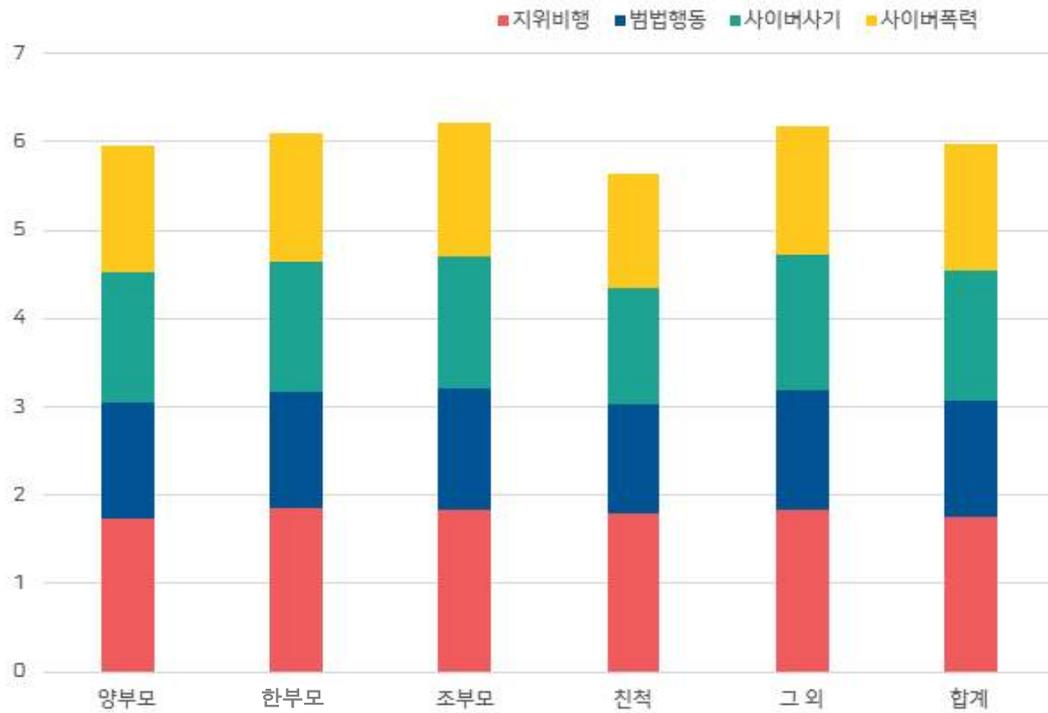
자. 거주인별 비행태도 수준

거주인별 비행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지위비행의 경우에만 거주인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와 거하는 경우의 평균이 1.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부모와만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이 1.84점, 그 외 청소년보호시설이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선후배 등과 거주하거나 혼자 살고 있다는 이들의 평균이 1.83점, 친척과만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이 1.80점, 양부모와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이 1.74점 순으로 높았다.

<표 19> 거주인별 비행태도 수준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지위비행	양부모	4,643	1.74	.62	5.68***
	한부모	674	1.85	.63	
	조부모	72	1.84	.64	
	친척	10	1.80	.51	
	그 외	188	1.83	.76	
	합계	5,587	1.76	.62	
범법행동	양부모	4,644	1.31	.43	1.08
	한부모	676	1.32	.42	
	조부모	71	1.37	.49	
	친척	10	1.22	.31	
	그 외	191	1.36	.51	
	합계	5,592	1.31	.43	
사이버사기	양부모	4,657	1.48	.48	.83
	한부모	676	1.48	.46	
	조부모	72	1.50	.48	
	친척	10	1.32	.35	
	그 외	193	1.53	.57	
	합계	5,608	1.48	.48	
사이버폭력	양부모	4,658	1.43	.50	.74
	한부모	677	1.44	.50	
	조부모	72	1.50	.54	
	친척	10	1.30	.29	
	그 외	194	1.45	.57	
	합계	5,611	1.43	.50	

\*\*\* p<.001 \*\*p<.01 \*p<.05



<그림 16> 거주인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 차. 경제수준별 비행태도 수준

청소년이 지각한 경제적 수준별 비행태도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위비행 수준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2.22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95점, ‘보통’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77점, ‘비교적 잘사는 편’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71점, 매우 잘사는 편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57점 순으로 나타났다.

범법행동 수준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33점, ‘보통’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32점, ‘비교적 잘사는 편’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32점, ‘매우 잘사는 편’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25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 수준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53점, ‘보통’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49점, ‘비교적 잘사는 편’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47점, ‘매우 잘사는 편’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수준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46점, ‘보통’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44점, ‘비교적 잘사는 편’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41점, 매우 잘사는 편이라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31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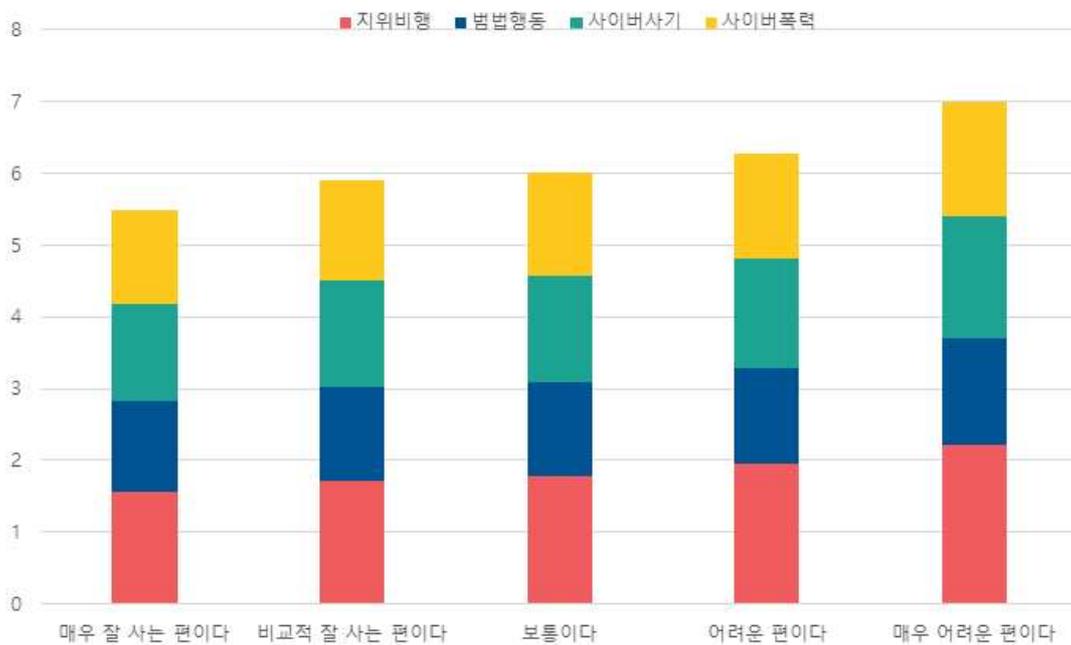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어렵다’라고 응답할수록 네 유형의 비행태도 수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경제수준별 비행태도 수준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지위비행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5	1.57	.68	19.22** *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97	1.71	.62	
	보통이다	3,686	1.77	.61	
	어려운 편이다	249	1.95	.65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2.22	.87	
	합계	5,574	1.76	.62	
범법행동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4	1.25	.45	2.75*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98	1.32	.44	
	보통이다	3,690	1.32	.42	
	어려운 편이다	250	1.33	.45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1.49	.66	
	합계	5,579	1.31	.43	
사이버사기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7	1.35	.48	8.78***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302	1.47	.50	
	보통이다	3,700	1.49	.47	
	어려운 편이다	250	1.53	.49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1.70	.69	
	합계	5,596	1.48	.48	

사이버폭력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9	1.31	.51	6.16***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300	1.41	.51	
	보통이다	3,703	1.44	.49	
	어려운 편이다	249	1.46	.52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1.59	.75	
	합계	5,598	1.43	.50	

\*\*\*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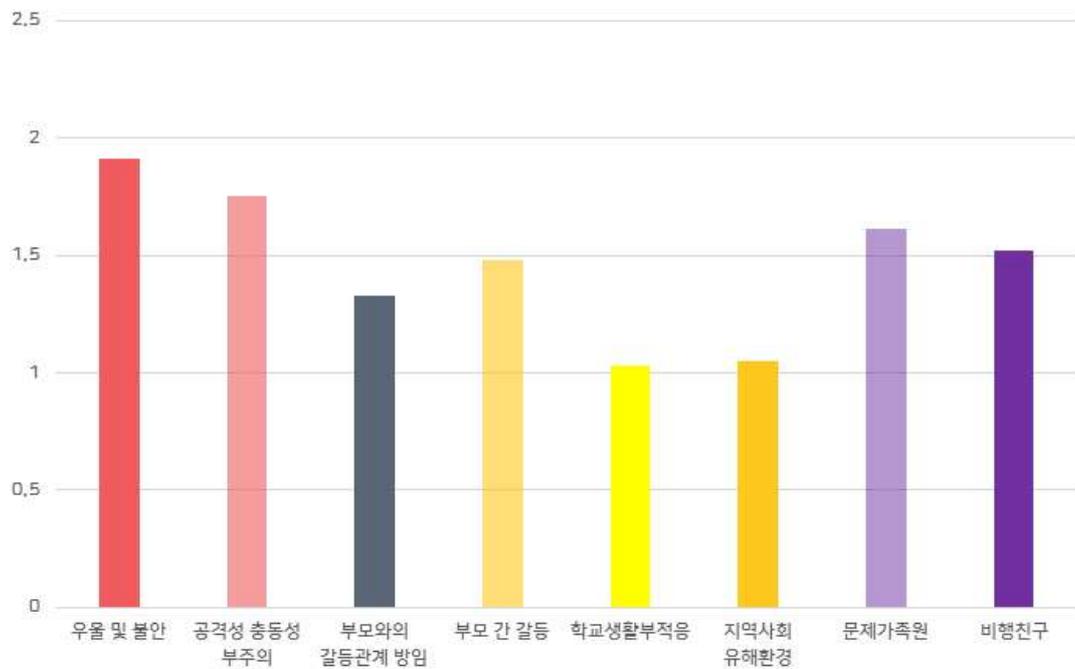
<그림 17> 경제수준별 비행태도 수준별 분포

### 3. 청소년 위험요인 수준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우울 및 불안 평균이 1.9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격성·충동성·부주의의 평균이 1.75점, 학교생활 부적응이 1.61점,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1.52점, 부모 간 갈등이 1.48점, 부모와의 관계갈등 및 방임이 1.33점, 비행친구가 1.05점, 문제가족원이 1.03점 순으로 높았다.

<표 21> 위험요인 수준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개인영역	우울 및 불안	5,499	1.91	.80
	공격성·충동성·부주의	5,487	1.75	.66
가족영역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5,519	1.33	.51
	부모 간 갈등	5,533	1.48	.72
	문제가족원	5,482	1.03	.16
또래영역	비행친구	5,528	1.05	.18
학교영역	학교생활 부적응	5,511	1.61	.71
지역사회 영역	지역사회 유해환경	5,508	1.52	.70



<그림 18>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가. 성별 위험요인 수준

성별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부모와의 갈등 및 방임, 비행친구, 지역사회 유해환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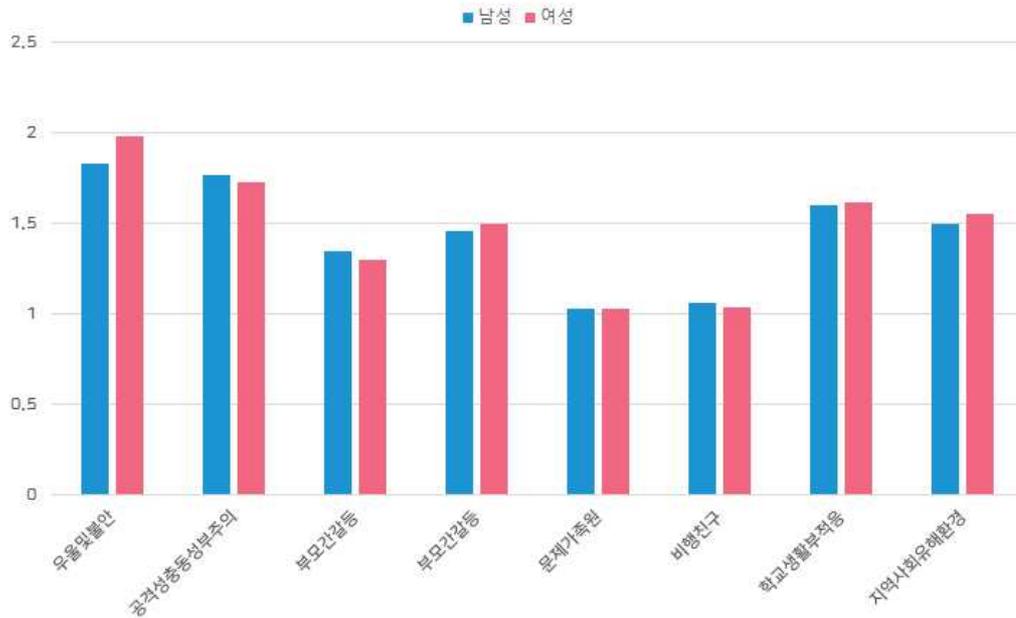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 수준은 여자청소년 평균이 1.98점

으로 남자청소년 평균 1.8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이 1.77점으로 여자청소년 평균 1.7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이 1.35점으로 여자청소년 평균 1.3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행친구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이 1.06점으로 여자청소년 평균 1.0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지역사회 유해환경 수준은 여자청소년 평균 1.55점으로 남자청소년 평균 1.5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 간 갈등수준, 문제가족원,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은 성별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22> 성별 위험요인 수준

구 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개인영역	우울 및 불안	남성	2,788	1.83	.77	-6.89***
		여성	2,705	1.98	.8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남성	2,783	1.77	.69	2.67**
		여성	2,698	1.73	.62	
가족영역	부모와의 갈등 관계방임	남성	2,803	1.35	.54	3.51***
		여성	2,710	1.30	.49	
	부모 간 갈등	남성	2,811	1.46	.70	-1.83
		여성	2,716	1.50	.74	
	문제가족원	남성	2,783	1.03	.15	-1.31
		여성	2,693	1.03	.17	
또래영역	비행친구	남성	2,804	1.06	.19	3.48**
		여성	2,718	1.04	.16	
학교영역	학교생활 부적응	남성	2,797	1.60	.72	-.85
		여성	2,708	1.62	.70	
지역사회 영역	지역사회 유해 환경	남성	2,796	1.50	.68	-2.89**
		여성	2,706	1.55	.71	

\*\*\* p<.001 \*\*p<.01 \*p<.05



<그림 19> 성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 나.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이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과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 부모 간 갈등, 문제 가족원, 비행친구,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유해환경 등 모든 위험요인의 항목에서 학교 밖 센터를 다니거나 학교나 검정고시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평균이 각각 2.47점, 2.33점, 1.76점, 2.04점, 1.12점, 1.23점, 2.19점, 1.99점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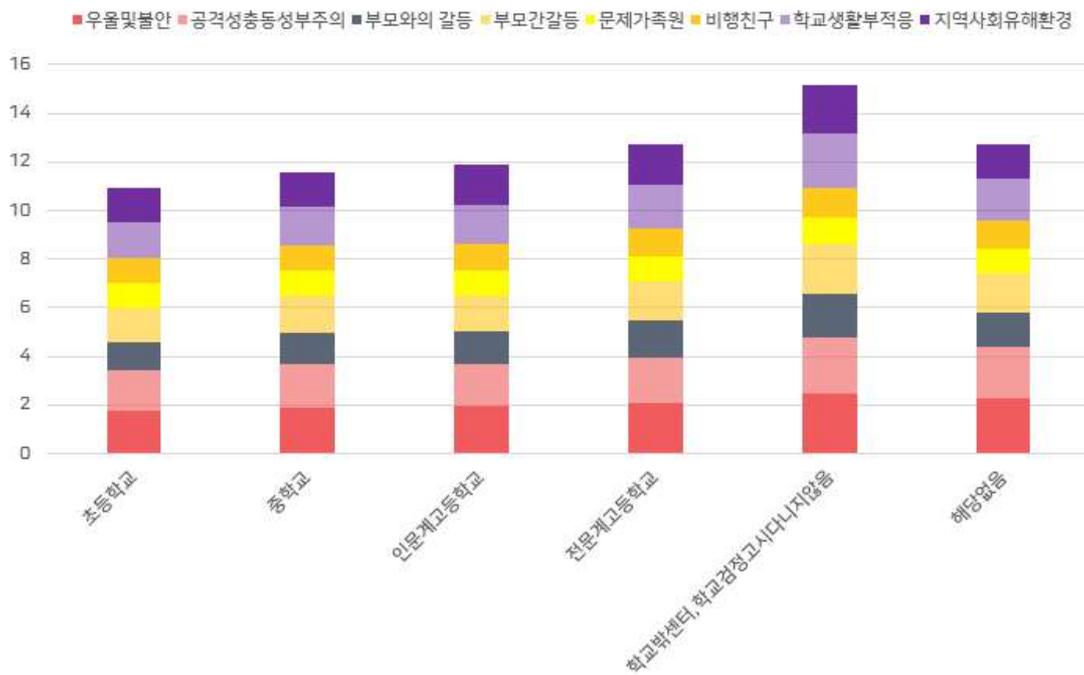
<표 23>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

구분	소속기관	N	평균	표준편차	F
개인 영역	초등학교	982	1.76	.70	16.55***
	중학교	2,518	1.90	.78	
	인문계고등학교	1,535	1.96	.83	
	전문계고등학교	390	2.06	.9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2	<b>2.47</b>	.98	
		해당없음	15	2.29	.68	
		합계	5,492	1.91	.80	
공격 성충 동성 부주 의		초등학교	973	1.66	.58	15.42***
		중학교	2,510	1.76	.65	
		인문계고등학교	1,538	1.75	.66	
		전문계고등학교	393	1.87	.7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1	<b>2.33</b>	.76	
		해당없음	15	2.09	.54	
		합계	5,480	1.75	.66	
부모 와의 갈등 관계 방임		초등학교	990	1.18	.36	36.76***
		중학교	2,525	1.33	.51	
		인문계고등학교	1,542	1.35	.52	
		전문계고등학교	389	1.53	.6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2	<b>1.76</b>	.83	
		해당없음	14	1.44	.42	
		합계	5,512	1.33	.51	
가족 영역	부모 간갈 등	초등학교	994	1.39	.66	14.20***
		중학교	2,532	1.49	.72	
		인문계고등학교	1,542	1.45	.68	
		전문계고등학교	392	1.64	.8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2	<b>2.04</b>	1.06	
		해당없음	14	1.57	.67	
		합계	5,526	1.48	.72	
문제 가족 원	초등학교	938	1.02	.13	4.13**	
	중학교	2,536	1.03	.17		
	인문계고등학교	1,543	1.02	.15		
	전문계고등학교	393	1.04	.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1	<b>1.12</b>	.23		
	해당없음	15	1.04	.11		
	합계	5,476	1.03	.16		
또래 영역	비행 친구	초등학교	986	1.01	.13	36.45***
		중학교	2,535	1.04	.16	
		인문계고등학교	1,543	1.08	.21	
		전문계고등학교	391	1.10	.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1	<b>1.23</b>	.34	
		해당없음	15	1.13	.26	
		합계	5,521	1.05	.18	
학교 생활 영역	학교 생활 부적 응	초등학교	982	1.53	.66	15.69***
		중학교	2,526	1.59	.70	
		인문계고등학교	1,543	1.60	.69	
		전문계고등학교	389	1.82	.8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0	<b>2.19</b>	.94	
		해당없음	14	1.73	.48	
		합계	5,504	1.61	.71	
지역 사회 영역	지역 사회 유해 환경	초등학교	978	1.38	.55	35.43***
		중학교	2,526	1.46	.66	
		인문계고등학교	1,540	1.67	.76	
		전문계고등학교	391	1.68	.8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1	<b>1.99</b>	.80	
		해당없음	15	1.44	.59	
		합계	5,501	1.52	.70	

\*\*\* p<.001 \*\*p<.01 \*p<.05



<그림 20>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다. 연령별 위험요인 수준

연령별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우울·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 부모 간 갈등, 비행친구,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유해 환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제가족원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불안 수준의 경우 18세와 19세 평균이 모두 2.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격성·충동성·부주의와 학교생활 부적응의 경우 18세의 평균이 각각 1.83점과 1.71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과 부모 간 갈등의 경우 19세가 각각 평균 1.45점과 1.55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행친구와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경우 18세와 19세 평균이 모두 각각 1.10점과 1.69점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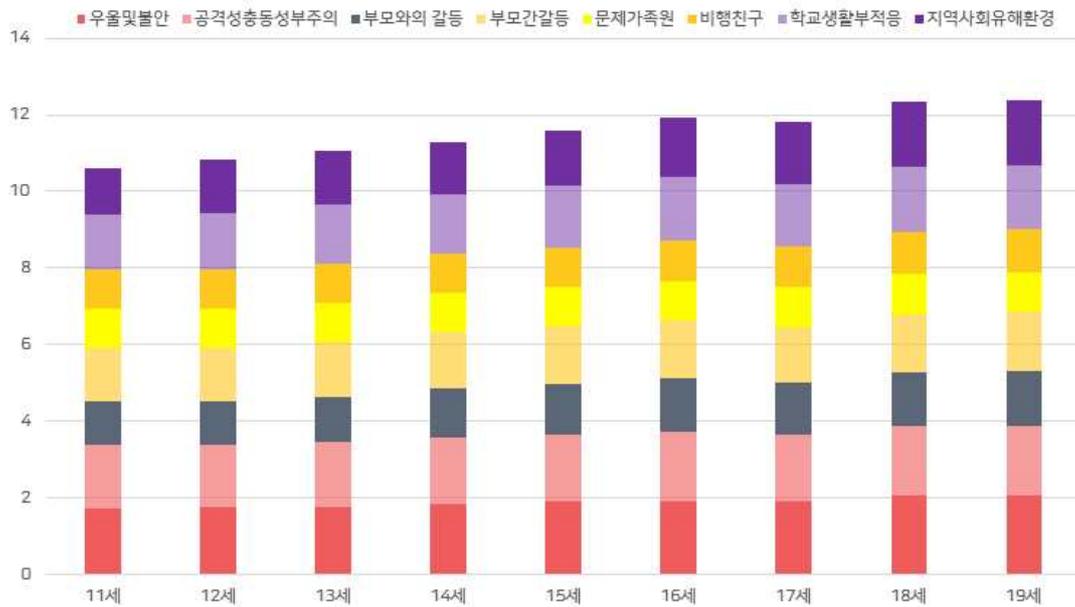
<표 24> 연령별 위험요인 수준

구 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개인영역	우울 및 불안	11세	52	1.71	.78	9.53***
		12세	425	1.75	.69	
		13세	512	1.77	.70	
		14세	982	1.85	.73	
		15세	673	1.93	.80	
		16세	887	1.93	.83	
		17세	801	1.92	.81	
		18세	569	<b>2.05</b>	.89	
		19세	597	<b>2.05</b>	.87	
		합계	5,498	1.91	.80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11세	50	1.66	.76	5.59***
		12세	423	1.63	.55	
		13세	507	1.68	.58	
		14세	978	1.73	.61	
		15세	669	1.73	.63	
		16세	887	1.80	.71	
		17세	806	1.73	.65	
		18세	569	<b>1.83</b>	.73	
		19세	597	1.82	.70	
합계		5,486	1.75	.66		
가족영역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11세	52	1.16	.35	18.959***
		12세	427	1.15	.32	
		13세	517	1.20	.39	

		14세	983	1.28	.42		
		15세	672	1.33	.48		
		16세	894	1.38	.61		
		17세	802	1.35	.53		
		18세	571	1.41	.60		
		19세	600	<b>1.45</b>	.59		
		합계	5,518	1.33	.51		
	부모간갈등	11세	51	1.37	.69	3.64***	
		12세	428	1.37	.65		
		13세	521	1.40	.66		
		14세	988	1.46	.69		
		15세	674	1.49	.69		
		16세	894	1.53	.78		
		17세	803	1.46	.69		
		18세	573	1.51	.77		
		19세	600	<b>1.55</b>	.76		
		합계	5,532	1.48	.72		
	문제가족원	11세	52	1.05	.18	.67	
		12세	426	1.03	.10		
		13세	519	1.02	.15		
		14세	988	1.03	.19		
		15세	676	1.02	.11		
		16세	896	1.03	.19		
		17세	806	1.03	.16		
		18세	573	1.04	.14		
		19세	598	1.03	.17		
		합계	5,482	1.03	.16		
	또래영역	비행친구	11세	50	1.01	.04	22.94***
			12세	426	1.01	.06	
			13세	517	1.02	.16	
14세			988	1.02	.09		
15세			676	1.03	.13		
16세			895	1.06	.21		
17세			804	1.07	.20		
18세			573	<b>1.10</b>	.22		
19세			598	<b>1.10</b>	.25		
합계			5,527	1.05	.18		

학교영역	학교생활 부적응	11세	52	1.43	.66	5.032***
		12세	426	1.50	.64	
		13세	510	1.57	.67	
		14세	985	1.55	.65	
		15세	674	1.62	.68	
		16세	891	1.63	.77	
		17세	801	1.61	.70	
		18세	573	<b>1.71</b>	.77	
		19세	598	1.68	.77	
		합계	5,510	1.61	.71	
지역사회 영역	지역사회 유해환경	11세	51	1.20	.36	25.08***
		12세	424	1.39	.56	
		13세	510	1.39	.55	
		14세	983	1.38	.57	
		15세	675	1.44	.60	
		16세	892	1.56	.77	
		17세	802	1.66	.75	
		18세	573	<b>1.69</b>	.78	
		19세	597	<b>1.69</b>	.81	
		합계	5,507	1.52	.70	

\*\*\* p<.001 \*\*p<.01 \*p<.05



<그림 21> 연령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라. 거주인별 위험요인 수준

거주인별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 공격성 · 충동성 · 부주의,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부모 간 갈등, 문제가족원,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행친구 요인과 지역사회 유해환경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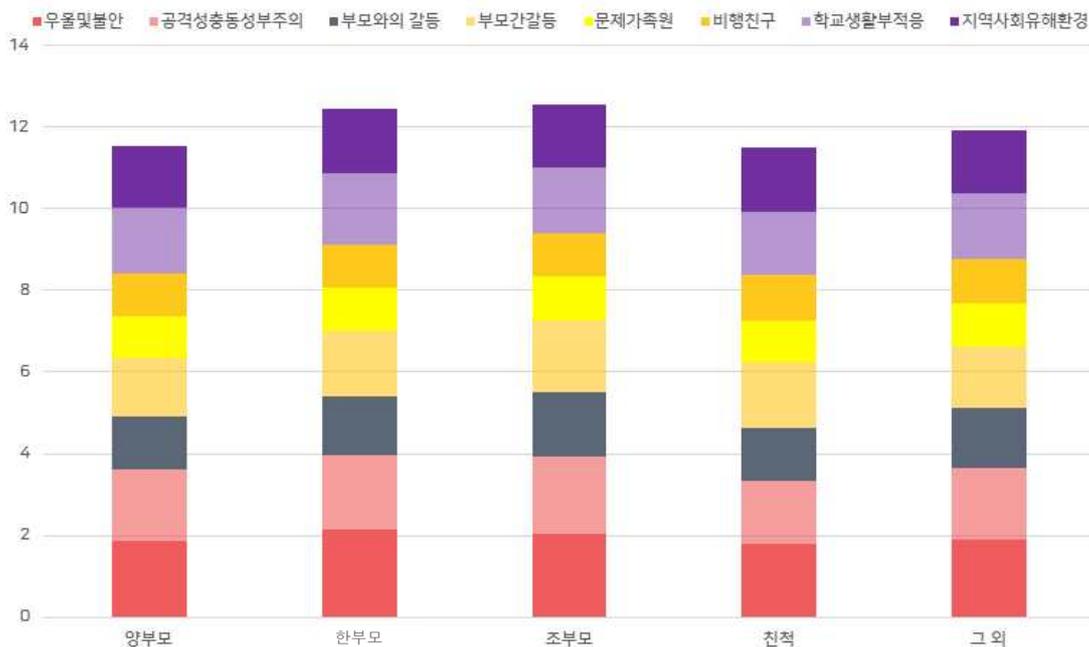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부모와의 갈등관계 방임, 부모 간 갈등, 문제가족원 요인에서 조부모와 거주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각각 1.90점, 1.59점, 1.73점, 1.08점으로 가장 높았다. 우울 및 불안요인과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은 한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2.13점, 1.74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25> 거주인별 위험요인 수준

구 분	거주인	N	평균	표준편차	F	
개인 영역	우울 및 불안	양부모	4,562	1.88	.78	14.56***
		한부모	661	<b>2.13</b>	.87	
		조부모	70	2.03	.86	
		친척	9	1.80	.72	
		그 외	187	1.89	.85	
		합계	5,489	1.91	.80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양부모	4,555	1.73	.65	4.61**
		한부모	657	1.84	.68	
		조부모	69	<b>1.90</b>	.78	
		친척	9	1.54	.56	
		그 외	187	1.77	.73	
합계		5,477	1.75	.66		
가족 영역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양부모	4,579	1.30	.49	17.91***
		한부모	660	1.44	.58	
		조부모	70	<b>1.59</b>	.66	
		친척	9	1.29	.46	
		그 외	191	1.45	.71	
		합계	5,509	1.33	.51	
	부모 간 갈등	양부모	4,592	1.45	.69	8.17***
		한부모	661	1.60	.83	
		조부모	69	<b>1.73</b>	.92	
		친척	10	1.60	.73	
		그 외	191	1.53	.86	
		합계	5,523	1.48	.72	
	문제가족원	양부모	4,551	1.02	.15	7.45***
		한부모	656	1.05	.16	

		조부모	68	<b>1.08</b>	.45	
		친척	10	1.03	.10	
		그 외	187	1.05	.14	
		합계	5,472	1.03	.16	
또래 영역	비행친구	양부모	4,587	1.05	.18	1.62
		한부모	662	1.06	.17	
		조부모	70	1.05	.12	
		친척	9	1.11	.33	
		그 외	190	1.08	.21	
		합계	5,518	1.05	.18	
학교 영역	학교생활 부적응	양부모	4,571	1.59	.70	6.46***
		한부모	662	<b>1.74</b>	.77	
		조부모	69	1.61	.68	
		친척	9	1.55	.74	
		그 외	190	1.59	.82	
		합계	5,501	1.61	.71	
지역 사회 영역	지역사회 유해환경	양부모	4,565	1.51	.68	1.74
		한부모	664	1.59	.75	
		조부모	69	1.57	.70	
		친척	10	1.56	.73	
		그 외	190	1.55	.79	
		합계	5,498	1.52	.70	

\*\*\* p<.001 \*\*p<.01 \*p<.05



<그림 22> 거주인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마. 경제수준별 위험요인 수준

청소년이 지각하는 경제수준별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위험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부모 간 갈등, 문제가족원, 비행친구, 지역사회 유해환경 요인에서 ‘매우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각각 2.55점, 2.12점, 1.96점, 2.59점, 1.17점, 1.15점, 2.06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은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1.96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26> 경제수준별 위험요인 수준

구 분	경제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개인영역	우울 및 불안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1	1.63	.77	58.76***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69	1.76	.75	
		보통이다	3,627	1.94	.79	
		어려운 편이다	244	2.48	.89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b>2.55</b>	1.11	
		합계	5,478	1.91	.80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1	1.58	.67	20.01***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72	1.68	.65	
		보통이다	3,612	1.77	.65	
		어려운 편이다	245	2.00	.67	
		매우 어려운 편이다	26	<b>2.12</b>	1.01	
합계		5,466	1.75	.66		
가족영역	부모와의 갈등관계 방임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2	1.20	.43	40.89***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82	1.25	.46	
		보통이다	3,630	1.34	.51	
		어려운 편이다	246	1.60	.67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b>1.96</b>	.99	
		합계	5,497	1.33	.52	
	부모간 갈등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1	1.26	.54	59.89***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85	1.36	.64	
		보통이다	3,642	1.50	.71	
		어려운 편이다	246	1.95	.95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b>2.59</b>	1.49	
합계		5,511	1.48	.72		

	문제가족원	매우 잘 사는 편이다	298	1.03	.22	8.78***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76	1.02	.14	
		보통이다	3,613	1.03	.15	
		어려운 편이다	245	1.06	.17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b>1.17</b>	.26	
		합계	5,459	1.03	.16	
또래영역	비행친구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1	1.05	.17	4.40**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84	1.06	.19	
		보통이다	3,638	1.05	.17	
		어려운 편이다	247	1.08	.18	
		매우 어려운 편이다	26	<b>1.15</b>	.26	
		합계	5,506	1.05	.17	
학교영역	학교생활부적응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2	1.40	.65	32.62***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78	1.50	.66	
		보통이다	3,626	1.64	.71	
		어려운 편이다	247	<b>1.96</b>	.83	
		매우 어려운 편이다	26	1.93	1.05	
		합계	5,489	1.61	.71	
지역사회영역	지역사회유해환경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0	1.34	.61	19.98***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76	1.46	.66	
		보통이다	3,626	1.55	.70	
		어려운 편이다	247	1.75	.77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b>2.06</b>	1.07	
		합계	5,486	1.52	.70	

\*\*\* p<.001 \*\*p<.01 \*p<.05



<그림 23> 경제수준별 위험요인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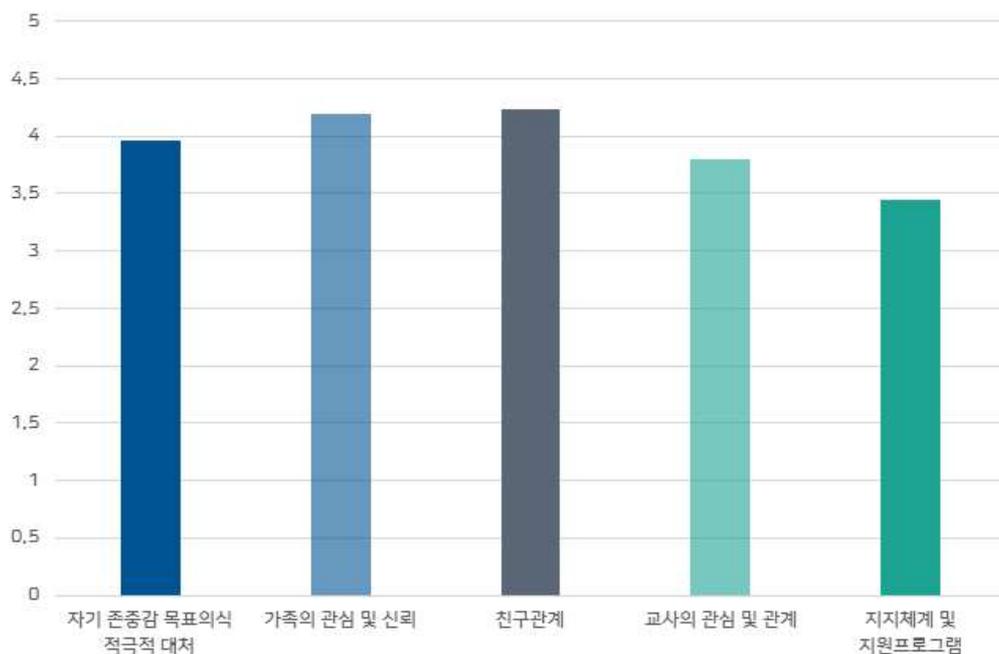
#### 4. 청소년 보호요인 수준

##### 가. 청소년들의 보호요인 수준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친구관계 평균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관심 및 신뢰 평균이 4.20점,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 평균이 3.96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평균이 3.80점,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평균이 3.44점 순으로 높았다.

<표 27>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개인영역	자기 존중감/목표의식 /적극적 대처	5,589	3.96	.72
가족영역	가족의 관심 및 신뢰	5,607	4.20	.78
또래영역	친구관계	5,604	4.23	.87
학교영역	교사의 관심 및 관계	5,598	3.80	.97
지역사회영역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5,582	3.44	1.01



<그림 24>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 나. 성별 보호요인 수준

성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수준이 여자청소년 평균 3.86점으로 남자청소년 평균 3.7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 3.49점으로 여자청소년 평균 3.3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친구관계 요인은 성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8> 성별 보호요인 수준

구 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대처	남성	2,839	3.98	.75	1.96
	여성	2,743	3.95	.69	
가족의 관심 및 신뢰	남성	2,856	4.20	.78	-.28
	여성	2,744	4.21	.77	
친구관계	남성	2,853	4.20	.89	-2.52
	여성	2,744	4.26	.86	
교사의 관심 및 관계	남성	2,846	3.74	.99	-4.60***
	여성	2,745	3.86	.94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남성	2,843	3.49	1.02	3.99***
	여성	2,732	3.39	.99	

\*\*\* p<.001 \*\*p<.01 \*p<.05



<그림 25> 성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다. 소속기관별 보호요인 수준

소속기관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이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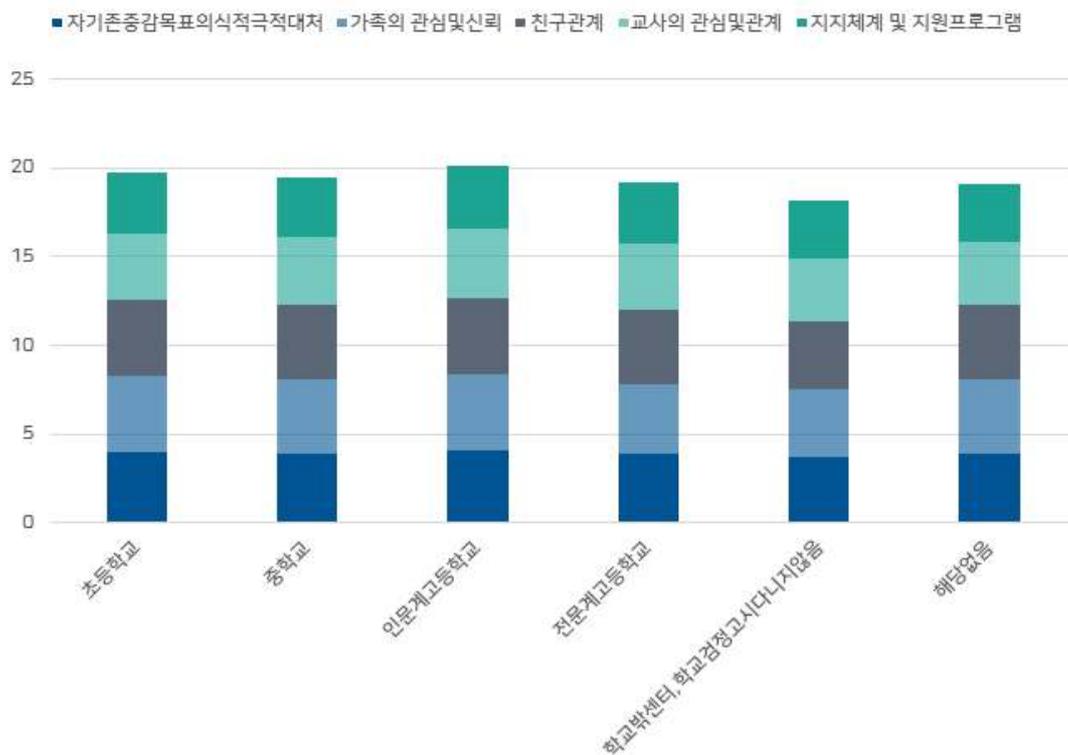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친구관계,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수준에서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 소속 평균이 각각 4.07점, 4.31점, 3.92점,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관심 및 신뢰의 경우 초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평균이 4.30으로 가장 높았다.

<표 29> 소속기관별 보호요인 수준

구 분	소속기관	N	평균	표준편차	F
개인 영역	초등학교	991	3.98	.67	12.66***
	중학교	2,578	3.92	.73	
	인문계고등학교	1,552	<b>4.07</b>	.71	
	전문계고등학교	394	3.85	.8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2	3.72	.64	
	해당없음	15	3.92	.53	
	합계	5,582	3.97	.72	
가정 영역	초등학교	997	<b>4.30</b>	.71	13.33***
	중학교	2,589	4.18	.78	
	인문계고등학교	1,551	4.25	.77	
	전문계고등학교	396	3.99	.8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2	3.82	.95	
	해당없음	15	4.15	.66	
	합계	5,600	4.20	.78	
또래 영역	초등학교	993	4.23	.92	6.36***
	중학교	2,589	4.21	.87	
	인문계고등학교	1,552	<b>4.31</b>	.81	
	전문계고등학교	396	4.13	.9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2	3.82	1.27	
	해당없음	15	4.20	1.13	
	합계	5,597	4.23	.87	

학교 학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초등학교	991	3.75	1.02	7.23***
		중학교	2,586	3.77	.95	
		인문계고등학교	1,551	<b>3.92</b>	.93	
		전문계고등학교	396	3.74	.9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2	3.50	1.01	
		해당없음	15	3.53	1.27	
		합계	5,591	3.80	.96	
지역 사회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 그램	초등학교	982	3.46	.97	4.17**
		중학교	2,578	3.39	1.00	
		인문계고등학교	1,552	<b>3.53</b>	1.03	
		전문계고등학교	396	3.44	1.0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검정고시다니지않음	52	3.25	1.05	
		해당없음	15	3.28	1.49	
		합계	5,575	3.44	1.01	

\*\*\* p<.001 \*\*p<.01 \*p<.05



<그림 26> 소속기관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라. 연령별 보호요인 수준

연령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 가족의 관심 및 신뢰,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친구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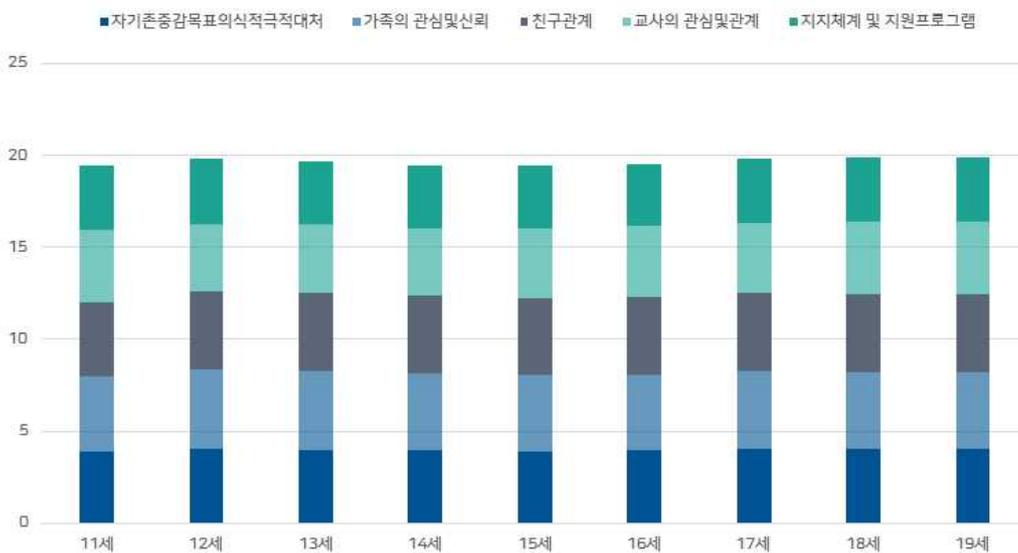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의 경우 19세의 평균이 4.04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관심 및 신뢰의 경우 12세와 13세가 모두 평균 4.31로 가장 높았다. 교사의 관심 및 관계의 경우 11세의 평균이 3.94로 가장 높았고,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2세, 17세, 19세 모두 평균 3.51로 가장 높았다.

<표 30> 연령별 보호요인 수준

구 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개인영역	자기 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	11세	52	3.89	.89	3.904***
		12세	426	4.03	.69	
		13세	520	3.94	.65	
		14세	1,021	3.93	.73	
		15세	682	3.88	.71	
		16세	899	3.93	.75	
		17세	816	4.02	.70	
		18세	569	4.01	.78	
		19세	603	<b>4.04</b>	.73	
		합계	5,588	3.96	.72	
가족영역	가족의 관심 및 신뢰	11세	53	4.10	.99	3.65***
		12세	431	<b>4.31</b>	.73	
		13세	520	<b>4.31</b>	.68	
		14세	1,029	4.21	.76	
		15세	682	4.16	.77	
		16세	902	4.14	.82	
		17세	817	4.22	.75	
		18세	571	4.18	.83	
		19세	601	4.16	.84	
		합계	5,606	4.20	.78	
또래영역	친구관계	11세	53	4.04	1.17	1.06
		12세	431	4.22	.98	
		13세	516	4.25	.86	

		14세	1,027	4.22	.89	
		15세	683	4.20	.86	
		16세	903	4.21	.85	
		17세	817	4.28	.83	
		18세	572	4.27	.86	
		19세	601	4.24	.85	
		합계	5,603	4.23	.87	
학교영역	교사의 관심 및 관계	11세	51	<b>3.94</b>	1.21	5.51***
		12세	428	3.71	1.08	
		13세	519	3.75	.95	
		14세	1,027	3.68	.97	
		15세	682	3.80	.89	
		16세	901	3.85	.96	
		17세	817	3.80	.94	
		18세	571	3.92	.97	
		19세	601	3.93	.95	
		합계	5,597	3.80	.97	
지역사회 영역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11세	51	3.48	1.12	2.24*
		12세	425	<b>3.51</b>	.98	
		13세	513	3.40	.95	
		14세	1,023	3.38	.99	
		15세	681	3.37	.96	
		16세	898	3.41	1.04	
		17세	817	<b>3.51</b>	.98	
		18세	572	3.49	1.08	
		19세	601	<b>3.51</b>	1.09	
		합계	5,581	3.44	1.01	

\*\*\* p<.001 \*\*p<.01 \*p<.05



<그림 27> 연령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마. 거주인별 보호요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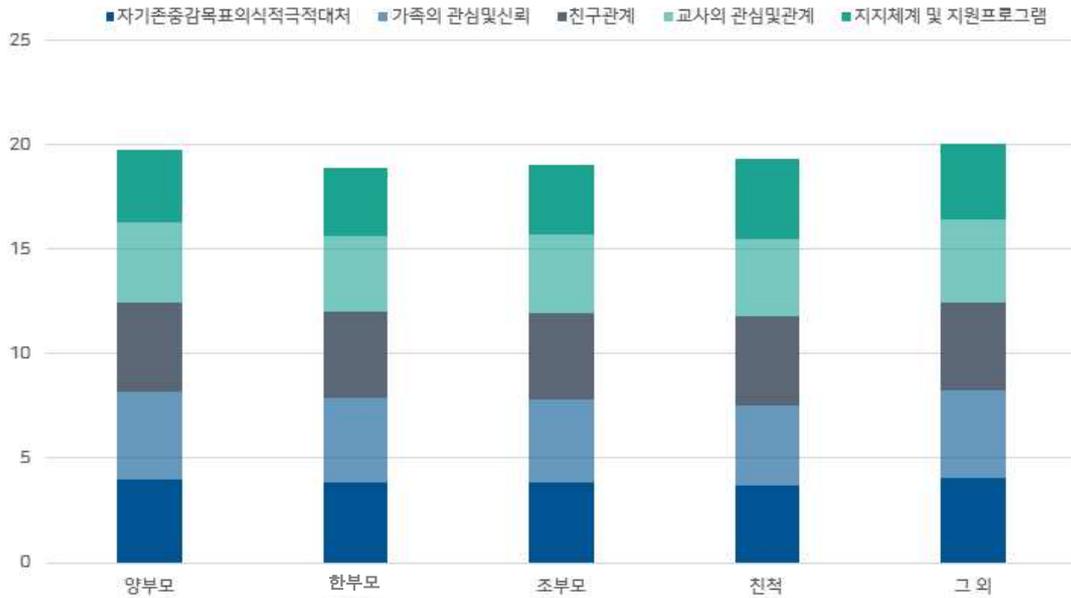
거주인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에서 양부모와 사는 청소년의 평균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관심 및 신뢰요인에서는 양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과 그 외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선후배 등과 거주하거나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다. 친구관계 요인과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요인에서는 친척과 거주하는 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2.27점과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요인은 그 외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선후배 등과 거주하거나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31> 거주인별 보호요인 수준

구 분	거주인	N	평균	표준편차	F	
개인영역	자기 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	양부모	4,640	<b>3.98</b>	.72	7.86***
		한부모	669	3.83	.72	
		조부모	73	3.84	.76	
		친척	9	3.68	1.05	
		그 외	188	4.05	.74	
		합계	5,579	3.96	.72	
가족영역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양부모	4,652	<b>4.23</b>	.77	11.19***
		한부모	676	4.04	.81	
		조부모	73	3.96	.97	
		친척	8	3.83	1.00	
		그 외	188	<b>4.23</b>	.84	
		합계	5,597	4.20	.78	
또래영역	친구관계	양부모	4,648	4.26	.85	4.82**
		한부모	675	4.11	.96	
		조부모	73	4.13	.91	
		친척	9	<b>4.27</b>	.90	
		그 외	189	4.17	.97	
		합계	5,594	4.23	.87	

학교영역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양부모	4,644	3.82	.96	5.36***
		한부모	674	3.67	1.00	
		조부모	73	3.74	1.05	
		친척	8	3.68	1.43	
		그 외	189	<b>3.98</b>	.95	
		합계	5,588	3.80	.97	
지역사회 영역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양부모	4,629	3.47	1.00	9.85***
		한부모	673	3.23	1.02	
		조부모	73	3.37	1.06	
		친척	8	<b>3.83</b>	.64	
		그 외	189	3.62	1.03	
		합계	5,572	3.44	1.01	

\*\*\* p<.001 \*\*p<.01 \*p<.05



<그림 28> 거주인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바. 경제수준별 보호요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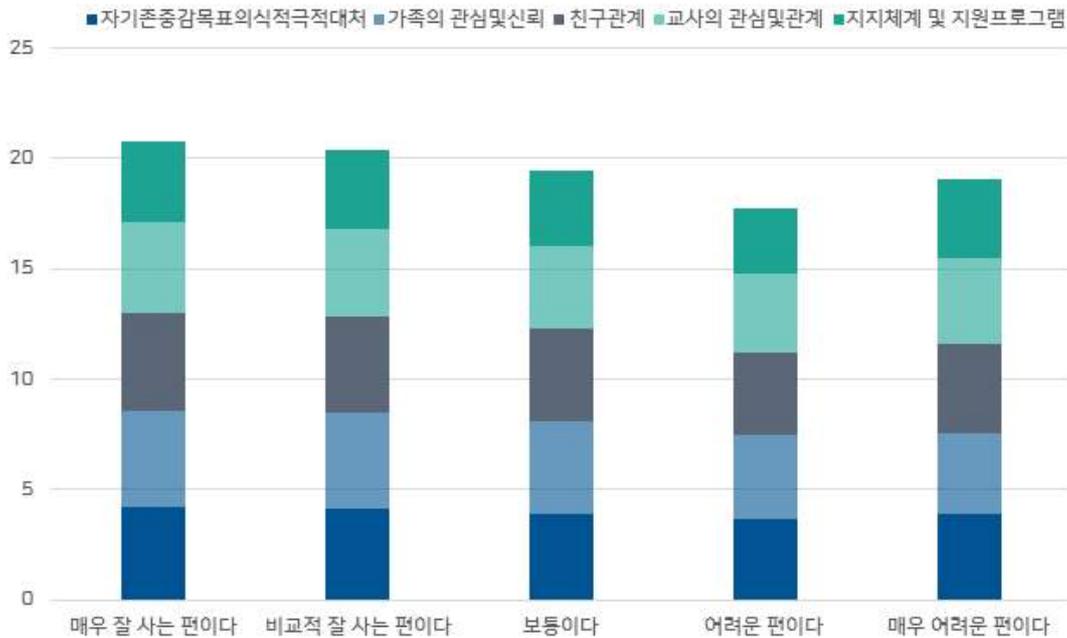
경제수준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요인이 경제수준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친구관계,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 요인에서 ‘매우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각각 4.19점, 4.41점, 4.36점, 4.13점, 3.70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32> 경제수준별 보호요인 수준

구 분	경제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개인	자기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2	<b>4.19</b>	.83	35.89***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98	4.11	.68	
		보통이다	3,682	3.91	.71	
		어려운 편이다	249	3.69	.73	
		매우 어려운 편이다	26	3.90	.94	
		합계	5,567	3.97	.72	
가족	가족의 관심 및 신뢰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2	<b>4.41</b>	.83	44.69***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302	4.36	.72	
		보통이다	3,694	4.17	.76	
		어려운 편이다	249	3.75	.91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3.67	1.03	
		합계	5,584	4.20	.78	
또래	친구관계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3	<b>4.36</b>	.98	23.94***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301	4.35	.83	
		보통이다	3,692	4.21	.85	
		어려운 편이다	248	3.80	1.05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4.05	1.32	
		합계	5,581	4.23	.87	
학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0	<b>4.13</b>	1.01	25.73***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98	3.95	.96	
		보통이다	3,690	3.74	.94	
		어려운 편이다	250	3.52	1.04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3.88	1.02	
		합계	5,575	3.80	.96	
지역사회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11	<b>3.70</b>	1.18	35.32***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293	3.64	.99	
		보통이다	3,681	3.38	.98	
		어려운 편이다	248	2.95	1.03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3.58	1.05	
		합계	5,560	3.44	1.01	

\*\*\* p<.001 \*\*p<.01 \*p<.05



<그림 29> 경제수준별 보호요인 수준별 분포

## 5. 연령 및 경제수준과 비행태도, 위험 및 보호요인 수준

연령 및 경제수준과 비행태도, 위험 및 보호요인 수준 간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행태도는 위험요인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보호요인 수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경제수준은 비행태도와 위험요인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보호요인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행 태도와 위험요인 수준은 낮으며 보호요인 수준은 높았다. 연령은 비행태도와 위험요인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보호요인 중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족의 관심 및 관계 수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비행태도와 위험요인 수준이 높지만 보호요인 중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수준 역시 높았다. 그러나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있었다.

<표 33> 연령 및 경제수준과 비행태도, 위험 및 보호요인 수준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비행 태도	1.지위비행	1																		
	2.범법행동	.55**	1																	
	3.사이버사기	.52**	.69**	1																
	4.사이버폭력	.56**	.69**	.77**	1															
개인 위험 요인	5.우울 및 불안	.30**	.21**	.24**	.24**	1														
	6.공격성,충동성, 부주의	.34**	.34**	.36**	.35**	.63**	1													
	7.부모와 갈등 관계 및 방임	.36**	.38**	.33**	.35**	.55**	.56**	1												
	8.부모간갈등	.23**	.24**	.22**	.22**	.46**	.49**	.62**	1											
	9.문제가족원	.07**	.06**	.07**	.06**	.11**	.09**	.13**	.14**	1										
	10.비행친구	.28**	.20**	.15**	.19**	.10**	.17**	.16**	.11**	.42**	1									
	11.학교생활 부적응	.30**	.28**	.30**	.29**	.60**	.52**	.58**	.42**	.09**	.09**	1								
	12.유해환경	.35**	.32**	.31**	.31**	.40**	.44**	.51**	.38**	.10**	.21**	.48**	1							
보호 요인	13.자기존중감 /목표의식/적 극적대처	-.16**	-.19**	-.19**	-.19**	-.41**	-.40**	-.35**	-.30**	-.05**	-.01	-.46**	-.22**	1						
	14.가족의 관심 및 신뢰	-.22**	-.23**	-.19**	-.21**	-.49**	-.36**	-.53**	-.41**	-.09**	-.05**	-.41**	-.29**	.65**	1					
	15.친구관계	-.12**	-.16**	-.15**	-.15**	-.41**	-.27**	-.35**	-.25**	-.06**	.00	-.43**	-.20**	.53**	.56**	1				
	16.교사의 관심 및 관계	-.10**	-.13**	-.15**	-.13**	-.31**	-.26**	-.25**	-.20**	-.03**	.01	-.45**	-.17**	.54**	.47**	.51**	1			
	17.지지 체계 및 지원 프로 그램	-.10**	-.06**	-.12**	-.12**	-.41**	-.30**	-.24**	-.22**	-.06**	-.00	-.40**	-.18**	.54**	.48**	.50**	.58**	1		
18. 경제수준	.10**	.03*	.07**	.06**	.18**	.11**	.14**	.17**	.03*	.00	.14**	.11**	-.15**	-.16**	-.10**	-.12**	-.14**	1		
19. 연령	.41**	.13**	.13**	.19**	.11**	.07**	.15**	.06**	.01	.17**	.07**	.17**	.03**	-.04**	.019	.07**	.02*	.15**	1	

\*\*\*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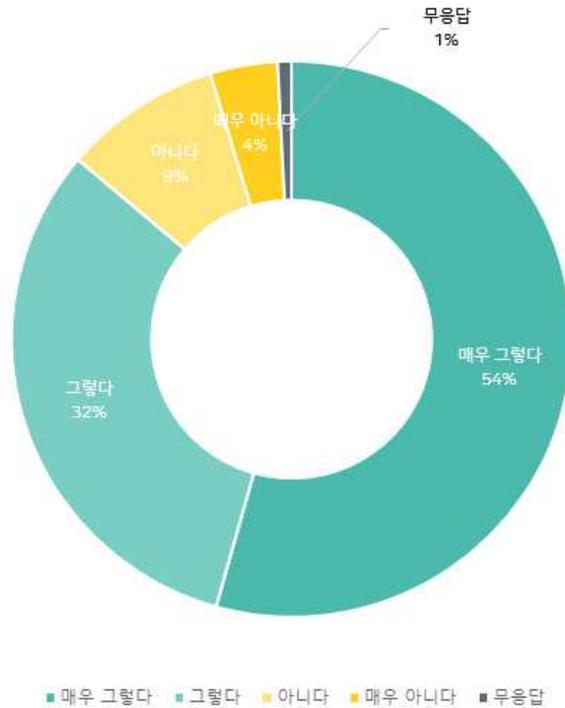
## 6.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대상 청소년 총 5,658명 중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86.1% 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아니다’,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13.0%, 무응답은 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하향 동의 및 비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동의 사유로는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악용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는 연령 불문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14세 미만 청소년도 범법행위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연령보다는 범법행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 ‘연령보다 피해자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함’,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 범법행위를 반복하게 될 것이므로’, ‘14세로 제한하면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목이 추출되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비동의 사유로는 ‘14세 미만은 중대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거나 실수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보다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 ‘지금 연령이 적당함’, ‘너무 가혹해서’, ‘연령하향이 범죄율 감소의 근본대책은 아니므로’ 등이 추출되었다.

<표 34>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매우 그렇다	3,075	54.3
그렇다	1,799	31.8
아니다	515	9.1
매우 아니다	222	3.9
무응답	47	.8
합 계	5,658	100.0



<그림 30>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별 분포

촉법소년 연령하향 동의 의견	촉법소년 연령하향 비동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악용하기 때문에</li> <li>- 범법행위는 연령 불문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li> <li>- 14세 미만 청소년도 범법행위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므로</li> <li>- 청소년의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li> <li>- 연령보다는 범법행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li> <li>- 연령보다 피해자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범법행위를 처벌해야 함</li> <li>-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 범법행위를 반복하게 될 것이므로</li> <li>- 14세로제한하면 14세 미만 청소년범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세 미만은 중대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li> <li>- 의도하지 않거나 실수일 수 있으므로</li> <li>-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므로</li> <li>-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li> <li>-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li> <li>- 연령보다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li> <li>- 지금 연령이 적당함</li> <li>- 너무 가혹해서</li> <li>- 연령하향이 범죄율 감소의 근본대책은 아니므로</li> </ul>

<그림 31>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의견

<표 35>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의한 이유

<p>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악용하기 때문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것을 이용해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li> <li>• 자신이 어린것을 알고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저걸 이용해 더 범죄를 저지른다.</li> <li>• 나이를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li> <li>• 만 14세가 안된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li> <li>• 자신이 촉법소년인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아서(아마도)</li> <li>• 그걸 믿고 범죄를 일으키는 애들이 많아서</li> <li>• 나이 때문에 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li> <li>•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큰 벌을 안 받는다 생각하기에 범죄를 저지르기 쉽기때문</li> </ul>
<p>범법행위는 연령 불문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을 가볍게 보고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li> <li>•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아야 평등하다</li> <li>• 아무리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는 범죄이다.</li> <li>• 청소년이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li> <li>•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li> <li>• 꼭 14세라도 벌을 안받는 것은 차별일수도 있다</li> <li>• 범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li> <li>• 벌은 공평히 받아야 되는거 같다</li> <li>• 똑같이 죄이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없다 생각했다</li> <li>• 죄를 저지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잘못된 일이어서</li> <li>• 나이는 어려도 범죄이기 때문</li> </ul>
<p>14세 미만 청소년도 범법행위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4세도 이제는 알 것을 다 안다</li> <li>• 초등학교도 알거 다 아는 나이가기 때문에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14세 미만이어도 범죄행위를 구별가능하다</li> <li>• 요즘 청소년들은 어리다고 어리지 않고 이미 알거 다 아는 나이가 되었고 하는 행동이 절대 어리고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li> <li>• 죄를 뉘우치고 판단할 능력은 이전의 나이에 깨달을 수 이다</li> <li>• 만으로 14세 정도면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분명 알 것인데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 조금 이해가 안 간다.</li> <li>• 청소년도 무엇이 죄인지 안다</li> <li>• 이미 클대로 컸고 알대로 다 알고 있는데 만 12세 미만정도로 낮춰야 할 것 같다</li> <li>•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어서</li> </ul>
<p>청소년의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데 영악하고 무서운 아이들이 많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음</li> <li>• 점점 낮은 연령대도 폭력적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li> <li>• 초등학교도 요즘 심각한 범죄를 일으킴(갈수록 범죄의 나이가 작아짐)</li> <li>• 애들이 너무 심한 범죄 저지름</li> <li>• 만 14세 미만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점 형사범죄를 일으키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므로</li> <li>• 아동범죄의 비율이 증가</li> <li>• 요즘 애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li> <li>• 범죄를 저지르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li> <li>• 요즘 어린 학생도 범죄를 심하게 저지르기 때문이다</li> </ul>
연령보다는 범법행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범죄이면 어려도 적절한 벌을 받는게 좋다</li> <li>• 나이로 따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범죄수준에 따라서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li> <li>• 큰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li> <li>• 큰 범죄이면 어려도 적절한 벌을 받는게 좋다</li> <li>• 작은 범죄면 괜찮겠지만 크게 저지른 범죄는 큰 처벌을 받아야 된다</li> </ul>
연령보다 피해자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들도 그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할까? 재판을 하는 당신네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봐라!</li> <li>• 촉법소년이라면 처벌 조금 받으면 피해자는 억울</li> <li>• 법 뒤에 숨어서 다 피해가니까 관한 피해자들만 피해를 본다.</li> <li>•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자만 서럽다.</li> <li>• 가벼운 처벌을 하면 피해자는 슬픔</li> <li>• 범죄를 저질렀을때 벌은 받아야 된다. 그럼 피의자는 억울하니까</li> <li>•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다</li> <li>• 촉법소년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 생각한다.</li> <li>•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걸 방패로 쓰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를 많이 본다.</li> <li>• 14세 미만이라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매우 억울하기 때문이다.</li> </ul>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 범법행위를 반복하게 될 것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면 또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다</li> <li>• 어리다고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도있게 된다.</li> <li>• 그러면 어른 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li> <li>• 나이가 어려도 처벌을 받아야 고쳐진다고 생각 한다</li> <li>• 초등학교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 일의 심각성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li> <li>• 어른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것이다.</li> <li>•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반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li> <li>• 초반에 잘못된 인식을 범으로써 강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li> <li>• 가벼운 처벌로 아이들이 더 큰 범죄로 갈 수 있기에</li> <li>• 처벌을 받아야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는걸 막을 수 있다.</li> </ul>
14세로 제한하면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게 되면 14세 미만인 사람들이 범죄를 더 저지를 거 같기 때문</li> <li>• 만 14세 미만이라고 벌을 더 적게 받으면 어린 아이들은 함부로 범죄를 저지른다.</li> <li>• 법이 약해서 죄를 많이 저지른다.</li> <li>• 범죄율이 더 높아진다</li> <li>• 그래야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li> </ul>

<표 36>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비동의한 이유

14세 미만은 중대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 13살 이하의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적어서
	•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 14세 미만이면 아직 나쁜 일을 해도 가벼운 싸움, 흠치기 등 밖에 안 해서
의도하지 않거나 실수일 수 있으므로	• 청소년 시기에는 주변 환경에 의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서.
	• 더 낮은 나이에 소년, 소녀들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서이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 호기심일수도 있어서
	• 경범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
	•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잘 몰라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 사람은 실수한다.
	• 어릴때는 궁금증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실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 어릴수록 호기심이 많다
	• 아직 어린 나이 밖에서 경험해 본게 별로 없어 호기심이나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1세부터 13세까지는 실수로 범죄를 할 수도 있어서 이다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 실수 할수도 있어서
	•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이 법을 악용하는 소수보다 많기 때문에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 만 14세 미만으로 규제받는 것이 많은데 보호조차 못 받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 만14세도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만 14세미만 청소년들은 자신이 저질른 행동이 잘 못 된건지 잘 한건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은 필요 X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 아직 어린 나이에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
	• 만 13세 까지는 생각이 아직 미숙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 14살 까지는 아직 정신적으로 발달이 크게 되지 않아서 판단력이 부족하다.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 너무 어리면 교육을 받을 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또한 만약 잘못했다고 하였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한 줄 모르기 때문에 반대 한다
	• 최소한 중학교 1학년까지는 가치관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 초등학생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인 14살부터가 적당하다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기회가 있고</li> <li>• 어린 소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li> <li>• 청소년은 아직 꿈이 있고 나이가 적기 때문</li> <li>• 어릴 때 한 번 봐줘야 한다</li> <li>• 한 번쯤 기회를.</li> <li>• 만 14세 미만은 더 좋은 미래가 있으니깐</li> <li>• 아직 뇌와 몸이 자라는 나이이고 아이들은 또 감옥이 무서운 것을 어른들은 알고있기 때문에 빨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li> </ul>
연령보다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가 뭐가 됐든 강도가 1호부터 10호까지 경계 지어서 다르다</li> <li>• 그래도 14세 미만인데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 받고 진짜 심할때만 진짜 처벌을 내리는게 나의 생각이다.</li> <li>•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기 보다는 죄질이나 죄의 종류에 따라 촉법소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li> <li>• 만 14세로 하되 범죄의 강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 또한 높인다</li> <li>• 만 14세 미만은 초등학교생이므로 충분히 실수 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범죄의 종류와 피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처벌해야 한다.</li> <li>• 만 14세 미만이라도 범죄의 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li> <li>• 촉법 소년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많지만 나이를 낮추는 것 보다는 상황과 사례에 따라 유동적인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li> </ul>
지금 연령이 적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낫출 이유가 없다</li> <li>• 이정도 나이가 적당하다고 생각 돼서</li> <li>• 만 14세 미만 나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li> <li>• 딱 적당한 것 같다</li> <li>•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li> <li>• 지금 나이 규정이 딱 좋다</li> <li>• 적당하다고 생각해서</li> <li>• 더 이상 낮아지면 안될 것 같다</li> <li>• 초등 학생 때는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 자각이 별로 없을거라 생각하고 14세 미만은 자각이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li> </ul>
너무 가혹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 나이부터 법의 냉랭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교화적으로 비적절하다.</li> <li>• 너무 가혹</li> <li>• 너무 어렸을 때 감옥에 오래 갇혀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li> <li>• 청소년이 견디기 힘든 처벌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기 때문이다</li> <li>•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에 가는 것은 좀 아니기 때문이다</li> </ul>
연령하향이 범죄율 감소의 근본대책은 아니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추어보았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li> <li>•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들진 않는다</li> <li>•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춰도 청소년 범죄율은 낮고, 내린다고 해도 그 나이 때 애들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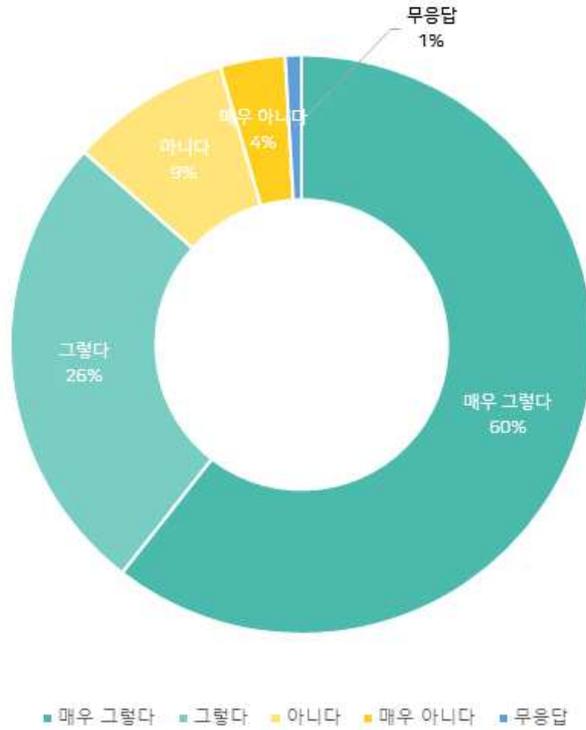
## 7.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대상 청소년 총 5,658명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만 19세)이라 하더라도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포함)라고 응답한 이들이 86.5%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아니다’와 ‘매우 아니다’ 포함)라고 응답한 이들은 13.5%, 무응답은 0.9%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동의 사유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실현, 피해 보상을 위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기위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국민의 알권리)’, ‘범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므로’,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이므로’ 등이 추출되었다. 비동의 사유로는 ‘가족 및 지인들이 피해를 입으므로’,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숙한 연령이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면 낙인과 차별을 겪게 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범죄 심각성에 따라 공개여부가 달라져야 함’ 등이 추출되었다.

<표 37>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매우 그렇다	3,422	60.5
그렇다	1,474	26.0
아니다	506	8.9
매우 아니다	201	3.6
무응답	55	.9
합계	5,658	100.0



<그림 3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별 분포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동의 의견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비동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보호를 위해</li> <li>-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실현, 피해보상을 위해</li> <li>-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li> <li>-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li> <li>-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국민의 알 권리)</li> <li>- 범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므로</li> <li>-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li> <li>-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li> <li>-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이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및 지인들이 피해를 입으므로</li> <li>-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숙한 연령이기 때문에</li> <li>- 신상공개 되면 낙인과 차별을 겪게 되기 때문에</li> <li>-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li> <li>-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므로</li> <li>- 범죄 심각성에 따라 공개여부가 달라져야 함</li> <li>- 너무 가혹해서</li> <li>- 연령하향이 범죄율 감소의 근본대책은 아니므로</li> </ul>

<그림 3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의견

<표 38>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동의한 이유

<p>피해자 보호를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돼서</li> <li>• 당한 사람은 매우 불쾌해서 꼭 누군지 알아야 할수도 있다</li> <li>• 심하면 피해자는 평생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li> <li>• 2차 피해 방지</li> <li>•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 찬성한다.</li> <li>•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모르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li> </ul>
<p>피해자 입장에서 정의실현, 피해보상을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를 안겨 주는데 만 19세 이하라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다</li> <li>• 성범죄는 미수만으로 피해자를 떨게 한다. 피해자는 청소년 때부터 평생을 공포에 떠는데 가해자는 왜 미래를 보장받아야 하는가?</li> <li>•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가해자가 뻔뻔히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혐오스럽다.</li> <li>• 피해자도 평생 상처=가해자 평생 고통</li> <li>• 성범죄인데 피해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li> <li>• 성범죄자의 신상을 보호해주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함</li> <li>• 성폭행이나 강간은 정신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li> <li>•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청소년이라고 해도 남의 인권을 똑같이 침해했기 때문에</li> <li>• 이미 성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상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li> <li>• 성범죄는 신체적 살인이 아닌 그 사람의 정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li> <li>•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 그 수치심이나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li> </ul>
<p>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적으로 하여 피해자가 당한 수치심을 똑같이 느끼게 해야한다</li> <li>• 쪽팔림을 당해야 한다.</li> <li>•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li> <li>• 교도소에서 나와서 또 그런 짓 저지르지 못하게 망신을 제대로 줘야죠.</li> <li>• 수치심을 느껴야하기 때문</li> <li>• 쪽팔린줄 알라고</li> <li>• 자신의 수치심을 느껴 다음부터 못하게 하려고</li> <li>• 수치심때문에</li> <li>•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수치심으로 알게 해야된다</li> <li>• 범죄자는 사회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li> </ul>
<p>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기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 범죄를 덜 저지를 것 같다.</li> <li>• 공개해야 자기가 한 짓이 못된것인지 알아야 한다</li> <li>•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또 저지를 수 있어서</li> <li>•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성범죄를 하고 다니기 때문이다</li> <li>• 세살버릇여든간다라고 지금부터 단속을 해야 커서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li> <li>• 무엇이 잘못인지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li> <li>• 공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li> <li>•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야지 줄어들거 같아서</li> <li>• 그 사람이 또 그럴것을 방지!</li> <li>•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li> <li>• 그 사람이 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li> <li>•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li> <li>• 죄의식을 갖게 해야 다음부터 안할 수 있기 때문에</li> <li>• 공개함으로써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구나하고 깨닫기 때문에</li> <li>• 그런 짓을 저지르면! 신상을 공개해야 나중에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아서</li> <li>• 그래야 얼굴을 알고 피하고 범죄자는 창피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li> <li>•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또 성범죄를 할 수 있다.</li> <li>•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그걸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li> <li>•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가볍게 생각해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다.</li> <li>• 신상이 공개 돼야 이런 짓 안하기 때문</li> </ul>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국민의 알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사람들이 신상을 파악해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li> <li>• 인권 존중은 해야겠지만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li> <li>• 공개해야 예방가능</li> <li>• 신상정보를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li> <li>• 그래야 그 사람을 피할 수 있으니까</li> <li>• 성범죄는 한번하게 되면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공개해야 한다</li> <li>• 성범죄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상공개가 당연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범죄자가 자신의 옆집이나 주위에 살 수도 있기 때문</li> <li>• 범죄 예방</li> <li>•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쁜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당연하다</li> <li>• 주변 청소년들은 언제 자신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것이다.</li> <li>• 신상을 공개해야 누군지 알아서 빨리 처벌할 수 있어서</li> <li>• 어리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저지르고 커서도 버릇을 고치지 않고 어른이 된다면 어떤 큰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li> <li>•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이다</li> <li>• 우리같은 일반 시민들이 피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여 미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li> <li>• 성범죄인 만큼 우리 지역에 범죄자가 있는지 알 권리는 있는 것 같다</li> <li>• 신상공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li> <li>• 나도 당할 수 있을 문제인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모르다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li> <li>• 신상공개를 해야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li> <li>• 얼굴을 알아야 도망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li> <li>• 또 다른 피해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li> <li>• 그래야 그 사람을 조심하니까</li> <li>• 피해다녀야 좋으니까</li> <li>• 알 권리가 있다</li> <li>• 또 다른 피해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li> <li>• 다음의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이다.</li> <li>•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수 있기 때문에</li> <li>•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li> <li>• 만약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또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li> <li>•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li> <li>•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범죄를 더 저지르수도 있기 때문</li> <li>•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제 3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신상을 공개하는게 당연한 것이다.</li> <li>• 공개하지 않으면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li> <li>•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li> <li>• 공개를 해야 재발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li> <li>•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저애가 저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li> <li>•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li> <li>• 인권이 중요해도 범죄자에 신상을 공개하면 안전해질 수도 있다</li> </ul>
범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9세이든 청소년이든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범죄자가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li> <li>• 나이가 어리다가 봐주는 건 아닌것 같다.</li> <li>• 성범죄도 엄연한 범죄이다.</li> <li>• 공정하게</li> <li>• 범죄는 범죄이므로 범죄자의 인권을 신경쓸 필요는 없다.</li> <li>• 범죄를 저지르면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죠</li> <li>• 상대가 당한 고통을 어리다고 봐주는 건 아니다!</li> <li>•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범죄자다</li> <li>• 나이나 성별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청소년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건 똑같기 때문에</li> <li>•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이를 따져서 피해 당한건 아닐 테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못을 했으니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li> <li>• 똑같은 범죄자다</li> <li>• 범죄자이기 때문</li> <li>•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li> <li>• 잘못했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li> <li>• 나쁜 짓을 하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li> <li>• 같은 범죄자니까</li> <li>• 어리더라도 잘못된거기 때문이다</li> <li>• 그 사람은 처벌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li> <li>•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나이를 떠나 해당 범죄에 따른 처벌을 강력히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li> <li>• 청소년이건 뭐건 범죄자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죠</li> <li>• 범죄를 저질렀으니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li> <li>• 범죄를 저질렀으니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li> <li>• 만 19세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li> </ul>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li> <li>•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li> <li>• 잘못된 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li> <li>• 남의 인권을 침해했으니 인권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li> <li>•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li> <li>•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권도 지켜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li> <li>• 남에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음</li> <li>• 그런 사람은 인권이 없고 없어야한다.</li> <li>• 범죄자한테 인권이 필요함?</li> </ul>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번방 사건만 보더라도 어린 범죄자들이 많다. 법이 엄격해지지 않으면 나이로 보호받을 것을 믿고 더욱 대담히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li> <li>• 악용하니까</li> <li>• 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증가</li> </ul>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이다.</li> <li>• 초중고등학생 때 충분히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안다는 것을 아는데도 저지르는 것이니까</li> <li>• 그들도 똑같은 성범죄자이며 어른들의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li> <li>•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 더이상 어려서 모르고 저지른 일이 아니다.</li> <li>• 청소년이라도 어느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li> <li>• 잘못은 나이 상관없다. 다 알 나이니까</li> <li>• 나이가 어리다고 다른 어른 범죄자와 다르게 없다</li> <li>• 성범죄라는 것을 할 나이라면 알건 안다는 뜻</li> <li>• 청소년들도 뭐가 맞고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성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한다.</li> </ul>

<표 39>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p>가족 및 지인들이 피해를 입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상을 공개하면 그 사람의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li> <li>• 조금 그렇다. 가족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li> <li>• 그 사람의 어머니까지 피해가 간다</li> <li>•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친척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그런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 2차 3차 피해자를 만들수 있기에 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li> </ul>
<p>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숙한 연령이기 때문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상을 공개하면 그 가족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li> <li>•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할 수 있어서</li> <li>• 아무 죄 없는 부모가 욕을 먹을것 같아서</li> <li>• 그것을 이용하여 어른들이 나의 대한 정보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위협해질수도 있고 또한 나도 위협할 수 있다</li> </ul>
<p>신상공개되면 낙인과 차별을 겪게 되기 때문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리 성범죄를 저질렀다지만 엄연히 아직 청소년이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li> <li>• 만 20세는 되어야 할 것 같다(19세까지는 좀 어리다)</li> <li>• 청소년 실수 할 수 있잖아요</li> <li>• 너무 어린 나이로</li> <li>• 아직 어려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li> <li>• 아직 나이가 적어서</li> <li>• 그래도 아직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니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직인거 같다.</li> <li>•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성년자이므로 정신적 성숙이 덜 됐다고 볼 수 있음</li> <li>•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 나이에 신상공개 당하면 앞으로도 사회적 차별이 심해지기 때문이다.</li> <li>• 성범죄를 해도 얼굴 공개를 하면 사람이 차별할 수 있다.</li> <li>•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남은 생애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li> <li>• 나중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힘이 든다.</li> <li>• 한번의 범죄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다</li> <li>•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렀어도 신상공개를 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지도 못할 것이다.</li> <li>• 청소년의 신상공개는 앞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회를 줘야함</li> <li>• 한 아이의 한 평생을 망치는 길이다</li> <li>• 어린 나이 이므로 앞으로 많이 살텐데 만약 신분공개를 한다면 그 학생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것 같다</li> <li>• 그래도 청소년인데 열공을 한다는 것 인생을 제대로 망치기 때문</li> <li>•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li> <li>• 소문이 들면 친구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다툼이 날 수도 있다.</li> <li>• 공개를 하고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할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에 공개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li> <li>•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다.</li> <li>• 얼굴을 공개하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li> <li>•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모든게 공개되면 처벌을 받은 후에 sns로 고통받을 것이다.</li> <li>• 그 사람이 얼굴이 사람들에게 알려진체로 사회로 나오면 힘들거라서</li> <li>• 너무 어린 나이에 범죄자라고 소문나면 살기 힘들다</li> <li>• 다른 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서</li> <li>• 학교 생활이 힘들것 같아서</li> <li>• 사회의 시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li> <li>• 이름이 공개되면 사회생활이 어렵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할 것 같다</li> <li>•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게 들키면 저절로 학교나 이런곳에 소문이 날것이기 때문이다.</li> <li>•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 학교에서 따돌림을 크게 받아 잘못을 크게 누우쳤어도 가는 곳마다 차별은 받을 수 있기 때문</li> <li>• 공개하면 왕따가 될수 있을지도 있기때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죄를 반성하고 사회에 살아갈 기회가 있다.</li> <li>• 개선의 여지가 크기에</li> <li>•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고 바뀔수도 있어요</li> <li>• 교육 실시 후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li> <li>• 마땅한 벌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li> <li>• 죽을날 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고</li> <li>• 공개하면 그 친구는 용서 받을 기회도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됨</li> <li>• 갱생할 수 있다</li> <li>•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아는 나이나니 삶의 수치심을 그만 주면 될 것 같기 때문이다</li> <li>• 어린 나이에 실수할 수 있는데 반성을 하면 얼굴이 공개되면 반성을 안할것</li> <li>• 살 날이 많다</li> <li>• 아직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다 자라지 않았기에 기회를 준다.</li> <li>• 아직은 충분히 반성할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잡아준다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재범이 일어날 경우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li> <li>• 다시 인간이 될 기회와 인권은 보장하여야 하기에</li> <li>• 반성할 수 있는 나이이고 얼굴이 공개되면 남은 미래를 너무 불행하게 살 것 같다</li> <li>•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잘 몰라 벌을 주고 앞으로 더 성숙한 생활을 하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청소년은 아직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야 한다.</li> <li>•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음</li> </ul>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사회화의 기회</li> <li>• 아직 뉘우칠 수 있는 나이이고 기회가 있다</li> <li>• 청소년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li> <li>• 뉘우치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될수도 있어서</li> <li>• 잘못을 깨우치고 벌을 받은 뒤에 다시 올바르게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 공개됐던 신상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li> <li>• 아직 살아갈 나이가 많다. 기회를 2번 주자</li> <li>• 앞으로 제대로 살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자도 인권이 존재한다</li> <li>• 그 사람이 범죄자 이어도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li> <li>• 초상권 침해, 자유권 침해</li> <li>• 그래도 그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니까</li> <li>• 성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얼굴,이름,나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li> <li>• 그것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li> <li>• 그 사람의 인권 침해</li> <li>• 개인정보니까</li> <li>• 초상권침해이기 때문이다.</li> <li>• 개인의 신상과 권리도 생각하고 보고해 주어야 한다.</li> <li>• 인권이 있고 사생활이 있다.</li> <li>•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li> <li>•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거 같다</li> <li>• 그래도 인권은 지켜야 해서</li> <li>• 이런 사람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신상을 비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li> <li>• 그 사람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li> <li>• 그래도 남의 신상이니까</li> <li>•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li> <li>• 그래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다</li> <li>• 그래도 학생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좀 별로인것 같다.</li> <li>• 아무리 그래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li> <li>•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얼굴이나 나이에 신상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그러면 안될것 같다.</li> <li>• 개인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공개하면 인권침해기 때문이다.</li> <li>•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걸 공개하려 한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다.</li> <li>• 성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li> </ul>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범죄 심각성에 따라 공개여부가 달라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정도가 심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공개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성범죄자도 죄질이 악한정도가 낮으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li> <li>•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li> </ul>

## 8. 청소년 비행태도에 따른 요인 간 분석결과

### 가. 위험 및 보호요인과 비행태도 집단 구분

본 연구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별, 거주인, 소속집단, 경제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위험요인, 보호요인들 중에서 조사 대상 청소년의 비행태도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선 연속 변인인 예측 요인들은 범주 변인으로 변환하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 집단 평균을 활용하여 하위 35%, 65%, 100% 비율로 구분되는 기준점수를 산출한 후, 기준점수를 바탕으로 낮은, 중간, 높은 비행태도, 위험요인, 보호요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별 예측요인들의 기준 점수는 <표 40>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에 따른 사례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예측 요인들은 최종 회귀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표 40> 위험 및 보호요인과 비행태도 집단 구분

구분	구분	집단구분 (집단구분 기준 점수)		
		저	중	고
비행태도	지위비행	~7점	~10점	~20점
	범법행동	~8점	~10점	~32점
	사이버사기	~5점	~6점	~16점
	사이버폭력	~3점	~5점	~12점
위험요인	우울 및 불안	~3점	~9점	~32점
	공격성·충동성·부주의	~3점	~8점	~32점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점	~2점	~24점
	부모 간 갈등	~0점	~1점	~8점
	학교생활 부적응	~0점	~3점	~16점
	지역사회 유해환경	~0점	~2점	~12점
보호요인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14점	~16점	~20점
	가족의 관심 및 신뢰	~9점	~11점	~12점
	친구관계	~6점	~8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5점	~6점	~8점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6점	~9점	~12점

나.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과 지위비행 간 관계(교차분석)

<표 41>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지위비행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지위비행 (n=2268)	중간 지위비행 (n=1759)	높은 지위비행 (n=1563)	$\chi^2$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남성	1,093(48.2)	872(49.6)	887(56.7)	29.26***
		여성	1,175(51.8)	887(50.4)	676(43.3)	
	연령집단	11-13세	694(30.6)	249(14.1)	55(3.5)	831.64***
		14-16세	1,128(49.7)	881(50.1)	589(37.6)	
		17-19세	449(19.8)	630(35.8)	921(58.8)	
	거주인	양부모	1,937(85.3)	1,462(83.2)	1,244(79.8)	25.95**
		한부모	224(9.9)	218(12.4)	232(14.9)	
		조부모	25(1.1)	23(1.3)	24(1.5)	
		친척	4(0.2)	3(0.2)	3(0.2)	
		그 외	81(3.6)	51(2.9)	56(3.6)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이다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755(33.4)	479(27.3)	378(24.2)	63.06***
		보통이다	1,428(63.2)	1,191(67.9)	1,067(68.4)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78(3.4)	83(4.7)	115(7.4)		

\*\*\* p<.001 \*\*p<.01 \*p<.05

<표 42> 위험요인과 지위비행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지위비행 (n=2268)	중간 지위비행 (n=1759)	높은 지위비행 (n=1563)	$\chi^2$	
인 위험 요인	우울 및 불안	저	1,098(49.9)	505(29.5)	377(24.6)	378.01***
		중	633(28.8)	595(34.7)	451(29.5)	
		고	468(21.3)	613(35.8)	703(45.9)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저	1,204(54.9)	548(32.2)	400(26.1)	497.20***
		중	647(29.5)	628(36.9)	466(30.4)	
		고	343(15.6)	527(30.9)	669(43.6)	

인양여고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저	1,537(69.6)	809(47.2)	525(34.1)	590.09***
		중	380(17.2)	377(22.0)	313(20.4)	
		고	292(13.2)	529(30.8)	700(45.5)	
	부모 간 갈등	저	1,558(70.3)	916(53.3)	724(47.0)	282.68***
		중	264(11.9)	236(13.7)	183(11.9)	
		고	394(17.8)	566(32.9)	635(41.2)	
	문제가족원	없음	2,076(91.4)	1,597(90.9)	1,368(87.5)	17.51***
		있음	195(8.6)	159(9.1)	195(12.5)	
	비행친구	없음	2,122(93.5)	1,524(86.8)	1,126(72.0)	344.94***
		있음	148(6.5)	232(13.2)	437(28.0)	
	학교생활 부적응	저	1,161(52.7)	582(34.0)	446(29.0)	423.39***
		중	623(28.3)	517(30.2)	342(22.2)	
		고	420(19.1)	614(35.8)	751(48.8)	
	지역사회 유해환경	저	1,441(65.4)	778(45.5)	535(34.8)	546.94***
		중	434(19.7)	371(21.7)	250(16.3)	
		고	329(14.9)	561(32.8)	753(49.0)	

<표 43> 보호요인과 지위비행 간 관계(교차분석)

		구 분			단위: 명(%)	
		낮은 지위비행 (n=2268)	중간 지위비행 (n=1759)	높은 지위비행 (n=1563)	$\chi^2$	
인양여고	자기 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	저	751(33.5)	831(47.8)	764(49.2)	175.25***
		중	539(24.1)	443(25.5)	383(24.7)	
		고	951(42.4)	464(26.7)	406(26.1)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저	750(33.4)	941(54.0)	947(60.8)	334.63***
		중	486(21.6)	318(18.2)	231(14.8)	
		고	1,012(45.0)	484(27.8)	379(24.3)	
	친구관계	저	855(38.1)	916(52.6)	838(53.9)	123.44***
		중, 고	1,392(61.9)	827(47.4)	717(46.1)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저	881(39.2)	819(47.1)	737(47.4)	87.68***
		중	459(20.4)	430(24.7)	378(24.3)	
		고	905(40.3)	491(28.2)	440(28.3)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저	776(34.6)	730(42.2)	719(46.2)	115.74***
중		799(35.7)	696(40.2)	532(34.2)		
고		665(29.7)	304(17.6)	304(19.5)		

다. 지위비행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교차분석 결과 각 집단에 따른 사례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요인들은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지위비행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성별, 연령, 경제수준, 거주인, 8개의 위험요인과 5개의 보호요인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낮은 지위비행 집단에 비하여 높은 지위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0.65배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4.62배 높았다. 경제수준은 낮은 지위비행 집단과 높은 지위비행 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별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위험요인 중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 4.44배,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1.57배,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높을수록 1.48배,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1.24배,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이 높을수록 1.14배 높았다. 반면 보호요인 중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지위비행 집단에 비하여 높은 지위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은 0.75배 낮았고, 거주인 중 그 외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선후배 등과 거주하거나 혼자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과 비교했을 때 한부모와 거주한다고 응답한 이들일수록 높은 지위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은 1.82배 높았다.

<표 44> 지위비행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구 분	B (SE)	OR	95 CI		
			하한값	상한값	
지위비행 (중)	절편	-2.86 0.36			
	성별	-0.14 0.07	.87	.76 1.01	
	연령	0.75 0.05	2.12***	1.90 2.35	
	낮은 경제수준	-0.05 0.07	.95	.83 1.09	
	위험요인	우울 및 불안	0.00 0.06	1.00	.90 1.1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32 0.06	1.37***	1.22 1.54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13 0.06	1.14*	1.01 1.29
		부모 간 갈등	0.04 0.05	1.04	.94 1.16
		문제가족원	-0.08 0.15	.92	.69 1.23
		비행친구	0.71 0.14	2.02***	1.53 2.68
		학교생활 부적응	0.14 0.06	1.15*	1.02 1.29
		지역사회 유해환경	0.25 0.05	1.28***	1.16 1.41

	보호요인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0.11	0.06	.90	.81	1.01
		가족의 관심 및 신뢰	-0.19	0.06	.83**	.74	.92
		친구관계	-0.05	0.09	.95	.80	1.14
		교사의 관심 및 관계	0.05	0.05	1.05	.94	1.16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0.05	0.06	1.05	.93	1.18
	거주인	양부모	0.24	0.21	1.27	.84	1.91
		한부모	0.39	0.23	1.48	.94	2.33
		조부모	0.35	0.38	1.43	.68	2.99
		친척	0.81	0.97	2.25	.34	15.09
		그 외	0 <sup>b</sup>				
지위비행 (고)	절편	-6.01	0.43				
	성별	-0.42	0.08	.65***	.56	.77	
	연령	1.53	0.07	4.62***	4.05	5.28	
	낮은 경제수준	-0.02	0.08	.98	.84	1.15	
	위험요인	우울 및 불안	0.00	0.07	1.00	.87	1.14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45	0.07	1.57***	1.38	1.79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35	0.07	1.42***	1.24	1.63
		부모 간 갈등	-0.03	0.06	.97	.87	1.09
		문제가족원	0.11	0.16	1.11	.81	1.53
		비행친구	1.49	0.14	4.44***	3.37	5.85
		학교생활 부적응	0.21	0.07	1.24**	1.08	1.41
	지역사회 유해환경	0.39	0.06	1.48***	1.33	1.65	
	보호요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0.07	0.07	.93	.82	1.06
		가족의 관심 및 신뢰	-0.29	0.07	.75***	.66	.86
		친구관계	0.16	0.11	1.18	.96	1.45
		교사의 관심 및 관계	0.08	0.06	1.09	.96	1.23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0.07	0.07	1.07	.94	1.23
	거주인	양부모	0.26	0.23	1.30	.83	2.05
		한부모	0.60	0.26	1.82*	1.10	3.00
조부모		0.24	0.43	1.27	.55	2.95	
친척		0.95	1.04	2.59	.34	20.00	
그 외		0 <sup>b</sup>					
	-2 Log 우도			8572.799***			
	Nagelkerke R-제곱			.329			

\*\*\* p<.001 \*\*p<.01 \*p<.05

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과 범법행동 간 관계 (교차분석)

<표 45>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범법행동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범법행동 (n=2442)	중간 범법행동 (n=1254)	높은 범법행동 (n=1899)	$\chi^2$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남성	1,077(44.1)	617(49.2)	1,164(61.3)	128.72***
		여성	1,365(55.9)	638(50.8)	735(38.7)	
	연령집단	11-13세	533(21.8)	248(19.7)	224(11.8)	86.10***
		14-16세	1,087(44.5)	607(48.3)	908(47.8)	
		17-19세	824(33.7)	402(32.0)	769(40.5)	
	거주인	양부모	2,049(83.9)	1,045(83.3)	1,551(81.8)	8.94
		한부모	273(11.2)	160(12.7)	243(12.8)	
		조부모	31(1.3)	12(1.0)	28(1.5)	
		친척	6(0.2)	0(0.0)	4(0.2)	
		그 외	84(3.4)	38(3.0)	69(3.6)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편이다,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737(30.2)	348(27.8)	527(27.9)	5.85
		보통이다	1,588(65.1)	845(67.5)	1,258(66.5)	
		매우 잘 사는편이다,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113(4.6)	58(4.6)	106(5.6)	

\*\*\* p<.001 \*\*p<.01 \*p<.05

<표 46> 위험 요인과 범법행동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범법행동 (n=2442)	중간 범법행동 (n=1254)	높은 범법행동 (n=1899)	$\chi^2$
인 위험 요인	우울 및 불안	저	1,121(47.1)	416(34.1)	442(23.9)	257.41***
		중	639(26.8)	410(33.6)	633(34.2)	
		고	621(26.1)	395(32.4)	774(41.9)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저	1,267(53.2)	455(37.4)	428(23.2)	508.43***
		중	694(29.2)	447(36.8)	607(33.0)	
		고	419(17.6)	314(25.8)	807(43.8)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저	1,589(66.5)	621(50.7)	665(35.9)	535.52***
		중	404(16.9)	317(25.9)	350(18.9)	
		고	398(16.6)	288(23.5)	836(45.2)	

인 의 위 험 요 인	부모 간 갈등	저	1,639(68.5)	734(59.7)	830(44.6)	305.35***
		중	277(11.6)	178(14.5)	233(12.5)	
		고	476(19.9)	317(25.8)	799(42.9)	
	문제 가족원	없음	2,235(91.4)	1,124(89.6)	1,684(88.8)	9.15*
		있음	209(8.6)	131(10.4)	213(11.2)	
	비행친구	없음	2,210(90.5)	1,095(87.2)	1,473(77.7)	143.79***
		있음	233(9.5)	161(12.8)	423(22.3)	
	학교생활 부적응	저	1,218(51.0)	452(37.0)	519(28.1)	408.34***
		중	643(26.9)	417(34.1)	428(23.1)	
		고	527(22.1)	354(28.9)	903(48.8)	
	지역사회 유해환경	저	1,514(63.5)	610(50.0)	630(34.0)	515.15***
		중	416(17.4)	311(25.5)	332(17.9)	
고		456(19.1)	300(24.6)	890(48.1)		

\*\*\* p<.001 \*\*p<.01 \*p<.05

<표 47> 보호 요인과 범법행동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범법행동 (n=2442)	중간 범법행동 (n=1254)	높은 범법행동 (n=1899)	$\chi^2$
자기 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	저	841(34.8)	505(40.4)	1,011(53.9)	243.66***
	중	559(23.2)	332(26.6)	476(25.4)	
	고	1,014(42.0)	413(33.0)	387(20.7)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저	901(37.2)	539(43.1)	1,213(64.5)	389.16***
	중	441(18.2)	300(24.0)	286(15.2)	
	고	1,080(44.6)	413(33.0)	382(20.3)	
친구관계	저	932(38.5)	546(43.6)	1,138(60.4)	211.42***
	중, 고	1,486(61.5)	705(56.4)	745(39.6)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저	894(37.0)	567(45.5)	984(52.3)	166.82***
	중	523(21.6)	284(22.8)	458(24.4)	
	고	1,002(41.4)	396(31.8)	438(23.3)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	저	865(35.8)	512(41.1)	858(45.8)	142.07***
	중	818(33.9)	481(38.6)	726(38.8)	
	고	731(30.3)	252(20.2)	288(15.4)	

\*\*\* p<.001 \*\*p<.01 \*p<.05

마. 범법행동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교차분석 결과 각 집단에 따른 사례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요인들은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범법비행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성별, 연령, 8개의 위험요인과 5개의 보호요인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낮은 범법행동 집단에 비하여 높은 범법행동 집단에 속할 확률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0.48배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1.23배 높았다. 위험요인 중 비행친구가 있을수록 2.15배,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1.63배,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높을수록 1.51배,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이 높을수록 1.26배 높았고,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0.79배 낮았다. 반면 낮은 범법행동 집단에 비하여 높은 범법행동 집단에 속할 확률은 보호요인 중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0.87배,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0.83배,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0.78배 낮았다.

<표 48> 범법행동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구분	B (SE)	OR	95 CI		
			하한값	상한값	
절편	-0.96 0.29				
성별	-0.23 0.07	0.80**	0.69	0.92	
연령	-0.05 0.05	0.95	0.86	1.05	
범법 행동 (중)	우울 및 불안	0.00 0.06	1.00	0.89	1.1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23 0.06	1.26***	1.12	1.42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15 0.06	1.16**	1.03	1.32
	부모 간 갈등	-0.05 0.05	0.95	0.86	1.06
	문제가족원	0.09 0.14	1.10	0.83	1.44
	비행친구	0.22 0.13	1.25	0.97	1.60
	학교생활 부적응	0.04 0.06	1.04	0.92	1.17
	지역사회 유해 환경	0.13 0.05	1.14**	1.03	1.26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0.05 0.06	1.05	0.94	1.18
	가족의 관심 및 신뢰	-0.05 0.06	0.95	0.85	1.07
보호 요인	친구관계	0.13 0.09	1.14	0.95	1.37
	교사의 관심 및 관계	-0.12 0.05	0.89*	0.80	0.99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0.07 0.06	0.94	0.83	1.05

범법 행동 (고)		절편	-0.72	0.27					
		성별	-0.74	0.07	0.48***	0.41	0.55		
		연령	0.21	0.05	1.23***	1.11	1.37		
	위험 요인		우울 및 불안	-0.23	0.06	0.79***	0.70	0.89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49	0.06	1.63***	1.46	1.82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23	0.06	1.26***	1.12	1.41	
			부모 간 갈등	0.02	0.05	1.02	0.93	1.13	
			문제가족원	-0.21	0.14	0.81	0.62	1.06	
			비행친구	0.77	0.11	2.15***	1.73	2.67	
			학교생활 부적응	0.11	0.06	1.12	1.00	1.25	
			지역사회 유해 환경	0.41	0.05	1.51***	1.38	1.66	
		보호 요인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0.14	0.06	0.87**	0.78	0.97
				가족의 관심 및 신뢰	-0.25	0.06	0.78***	0.70	0.87
			친구관계	-0.19	0.09	0.83*	0.70	0.99	
			교사의 관심 및 관계	-0.04	0.05	0.96	0.86	1.07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0.10	0.06	1.11	0.98	1.24	
			-2 Log 우도			8769.02***			
		Nagelkerke R-제곱			.206				

\*\*\* p<.001 \*\*p<.01 \*p<.05

#### 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과 사이버사기 간 관계 (교차분석)

<표 49>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이버사기 간 관계(교차분석)

		구 분	낮은 사이버사기 (n=2728)	중간 사이버사기 (n=953)	높은 사이버사기 (n=1930)	$\chi^2$
인구통계학적 정보	성별	남성	1,237(45.3)	436(45.8)	1,189(61.6)	132.30***
		여성	1,491(54.7)	517(54.2)	741(38.4)	
	연령 집단	11-13세	643(23.5)	175(18.3)	193(10.0)	141.83***
		14-16세	1,198(43.9)	435(45.5)	972(50.3)	
		17-19세	890(32.6)	345(36.1)	766(39.7)	

단위: 명(%)

인간관계학전공 본	거주인	양부모	2,272(83.3)	792(83.1)	1,593(82.7)	2.42
		한부모	328(12.0)	116(12.2)	232(12.0)	
		조부모	32(1.2)	11(1.2)	29(1.5)	
		친척	6(0.2)	2(0.2)	2(0.1)	
		그 외	91(3.3)	32(3.4)	70(3.6)	
	경제 수준	매우 잘 사는 편이다,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864(31.7)	260(27.3)	495(25.8)	24.98***
		보통이다	1,738(63.8)	653(68.5)	1,309(68.2)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123(4.5)	40(4.2)	114(5.9)	

\*\*\* p<.001 \*\*p<.01 \*p<.05

<표 50> 위험 요인과 사이버사기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사이버사기 (n=2728)	중간 사이버사기 (n=953)	높은 사이버사기 (n=1930)	$\chi^2$	
위험요인	우울 및 불안	저	1,266(47.6)	295(31.7)	426(22.7)	309.19***
		중	698(26.2)	314(33.7)	672(35.8)	
		고	696(26.2)	323(34.7)	777(41.4)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저	1,395(52.7)	329(35.2)	431(23.0)	554.26***
		중	788(29.7)	363(38.9)	602(32.2)	
		고	466(17.6)	242(25.9)	837(44.8)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저	1,725(64.6)	487(52.0)	667(35.5)	475.02***
		중	473(17.7)	223(23.8)	382(20.3)	
		고	472(17.7)	227(24.2)	830(44.2)	
	부모 간 갈등	저	1,805(67.6)	557(59.4)	847(44.8)	264.70***
		중	304(11.4)	125(13.3)	260(13.7)	
		고	561(21.0)	256(27.3)	784(41.5)	
문제가족원	없음	2,488(91.1)	868(91.0)	1,697(88.1)	13.01**	
	있음	242(8.9)	86(9.0)	230(11.9)		
비행친구	없음	2,438(89.3)	820(86.0)	1,535(79.7)	84.83***	
	있음	292(10.7)	133(14.0)	392(20.3)		

인간요인	학교생활 부적응	저	1,384(51.9)	324(34.6)	489(26.1)	456.36***
		중	684(25.6)	334(35.7)	472(25.2)	
		고	599(22.5)	278(29.7)	913(48.7)	
	지역사회 유해 환경	저	1,677(62.9)	447(47.9)	639(34.1)	483.80***
		중	499(18.7)	208(22.3)	356(19.0)	
		고	491(18.4)	278(29.8)	879(46.9)	

\*\*\* p<.001 \*\*p<.01 \*p<.05

<표 51> 보호 요인과 사이버사기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사이버사기 (n=2728)	중간 사이버사기 (n=953)	높은 사이버사기 (n=1930)	$\chi^2$	
보호 요인	자기 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	저	958(35.5)	398(42.1)	1,006(52.8)	210.22***
		중	630(23.3)	250(26.4)	485(25.4)	
		고	1,112(41.2)	298(31.5)	416(21.8)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저	1,048(38.6)	435(46.1)	1,178(61.5)	289.03***
		중	500(18.4)	222(23.5)	312(16.3)	
		고	1,164(42.9)	287(30.4)	424(22.2)	
	친구관계	저	1,064(39.3)	435(45.9)	1,125(58.8)	171.76***
		중, 고	1,643(60.7)	512(54.1)	788(41.2)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저	1,006(37.2)	443(46.9)	1,003(52.5)	185.04***
		중	578(21.4)	217(23.0)	470(24.6)	
		고	1,121(41.4)	284(30.1)	439(23.0)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	저	952(35.3)	412(43.7)	875(46.0)	161.74***
		중	930(34.5)	364(38.6)	735(38.6)	
		고	817(30.3)	167(17.7)	294(15.4)	

\*\*\* p<.001 \*\*p<.01 \*p<.05

사. 사이버사기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교차분석 결과 각 집단에 따른 사례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요인들은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사이버사기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성별, 연령, 경제수준, 8개의 위험요인과 5개의 보호요인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낮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비하여 높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속할 확률은 여자청소년의 경우 0.48배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1.40배 높았다. 경제수준은 낮은 사이버사기 집단과 높은 사이버사기 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별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위험요인 중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0.85배 낮았고,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1.68배,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높을수록 1.48배,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 1.45배,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1.23배,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이 높을수록 1.21배 높았다. 반면 낮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비하여 높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속할 확률은 보호요인 중 친구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0.90배 낮았다.

<표 52> 사이버사기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구 분	B (SE)	OR	95 CI	
			하한값	상한값
사이버 사기 (중)  위 험 요 인	절편	-1.91 0.33		
	성별	-0.04 0.08	.96	.82 1.12
	연령	0.12 0.06	1.13*	1.01 1.27
	낮은 경제수준	0.00 0.08	1.00	.86 1.17
	우울 및 불안	0.07 0.07	1.08	.95 1.22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25 0.06	1.28***	1.13 1.46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04 0.07	.96	.84 1.10
	부모 간 갈등	-0.07 0.06	.93	.83 1.04
	문제가족원	-0.02 0.15	.98	.73 1.33
	비행친구	0.21 0.13	1.23	.96 1.59

보호 요인	학교생활 부적응	0.08	0.07	1.08	.95	1.23
	지역사회 유해환경	0.22	0.05	1.24***	1.12	1.38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0.09	0.06	1.09	.97	1.24
	가족의 관심 및 신뢰	-0.05	0.06	.95	.84	1.07
	친구관계	0.11	0.10	1.11	.92	1.36
	교사의 관심 및 관계	-0.12	0.06	.88*	.79	.99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0.15	0.07	.86*	.76	.98
사이버 사기 (고)	절편	-1.55	0.28			
	성별	-0.74	0.07	.48***	.42	.55
	연령	0.34	0.05	1.40***	1.27	1.55
	낮은 경제수준	-0.01	0.07	.99	.86	1.12
	우울 및 불안	-0.16	0.06	.85**	.76	.95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52	0.05	1.68***	1.51	1.87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19	0.06	1.21**	1.08	1.35
	부모 간 갈등	-0.02	0.05	.98	.89	1.08
	문제가족원	0.04	0.13	1.04	.81	1.34
	비행친구	0.37	0.11	1.45**	1.17	1.78
	학교생활 부적응	0.21	0.06	1.23***	1.10	1.37
	지역사회 유해환경	0.39	0.05	1.48***	1.35	1.62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0.07	0.06	.93	.84	1.04
	가족의 관심 및 신뢰	-0.09	0.06	.91	.82	1.02
	친구관계	-0.10	0.09	.90*	.76	1.07
교사의 관심 및 관계	-0.11	0.05	.90	.81	.99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0.03	0.06	1.03	.92	1.16	
-2 Log 우도			8718.76***			
Nagelkerke R-제곱			.204			

\*\*\* p<.001 \*\*p<.01 \*p<.05

아.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협 및 보호요인과 사이버폭력 간 관계 (교차분석)

<표 53>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이버폭력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사이버폭력 (n=2471)	중간 사이버폭력 (n=1817)	높은 사이버폭력 (n=1326)	$\chi^2$	
인구통계학적 정보	성별	남성	1,214(49.1)	807(44.4)	842(63.5)	117.90***
		여성	1,257(50.9)	1,010(55.6)	484(36.5)	
	연령 집단	11-13세	613(24.8)	330(18.2)	73(5.5)	225.47***
		14-16세	1,093(44.2)	840(46.2)	670(50.5)	
		17-19세	769(31.1)	648(35.6)	584(44.0)	
	거주인	양부모	2,063(83.5)	1,516(83.4)	1,079(81.6)	16.49
		한부모	282(11.4)	227(12.5)	168(12.7)	
		조부모	27(1.1)	23(1.3)	22(1.7)	
		친척	4(0.2)	6(0.3)	0(0.0)	
		그 외	96(3.9)	45(2.5)	53(4.0)	
	경제 수준	매우 잘 사는 편이다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798(32.3)	476(26.3)	345(26.2)	25.35***
		보통이다	1,557(63.1)	1,239(68.4)	907(68.8)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113(4.6)	97(5.4)	66(5.0)		

\*\*\* p<.001 \*\*p<.01 \*p<.05

<표 54> 위협 요인과 사이버폭력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 분		낮은 사이버폭력 (n=2471)	중간 사이버폭력 (n=1817)	높은 사이버폭력 (n=1326)	$\chi^2$	
위협 요인	우울 및 불안	저	1,205(50.1)	513(29.0)	270(20.9)	381.95***
		중	606(25.2)	622(35.1)	456(35.3)	
		고	593(24.7)	637(35.9)	566(43.8)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저	1,319(55.0)	569(32.2)	265(20.6)	607.75***
		중	670(27.9)	680(38.5)	402(31.2)	
		고	411(17.1)	517(29.3)	621(48.2)	

인간관계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저	1,614(66.8)	856(48.1)	415(32.1)	578.28***
		중	414(17.1)	429(24.1)	232(18.0)	
		고	387(16.0)	494(27.8)	645(49.9)	
	부모 간 갈등	저	1,698(70.2)	983(55.1)	532(40.9)	376.56***
		중	251(10.4)	282(15.8)	156(12.0)	
		고	469(19.4)	518(29.1)	612(47.1)	
	문제 가족원	없음	2,238(90.5)	1,652(91.0)	1,164(87.8)	9.40**
		있음	235(9.5)	164(9.0)	161(12.2)	
	비행친구	없음	2,221(89.8)	1,562(86.0)	1,008(76.1)	131.80***
		있음	251(10.2)	254(14.0)	317(23.9)	
	학교생활 부적응	저	1,287(53.3)	582(32.8)	332(25.7)	571.47***
		중	621(25.7)	623(35.2)	245(19.0)	
		고	508(21.0)	567(32.0)	713(55.3)	
	지역사회 유해환경	저	1,572(65.2)	788(44.5)	406(31.4)	633.03***
		중	416(17.3)	455(25.7)	190(14.7)	
고		423(17.5)	529(29.9)	695(53.8)		

\*\*\* p<.001 \*\*p<.01 \*p<.05

<표 55> 보호 요인과 사이버폭력 간 관계(교차분석)

단위: 명(%)

구분		낮은 사이버폭력 (n=2471)	중간 사이버폭력 (n=1817)	높은 사이버폭력 (n=1326)	$\chi^2$
자기 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	저	813(33.2)	832(46.3)	716(54.5)	254.04***
	중	582(23.8)	456(25.4)	334(25.4)	
	고	1,051(43.0)	509(28.3)	264(20.1)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저	909(37.1)	854(47.4)	892(67.7)	389.71***
	중	453(18.5)	423(23.5)	163(12.4)	
	고	1,091(44.5)	525(29.1)	262(19.9)	
친구관계	저	948(38.7)	824(45.7)	848(64.4)	229.45***
	중, 고	1,501(61.3)	980(54.3)	468(35.6)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저	922(37.7)	832(46.2)	695(52.9)	162.53***
	중	510(20.9)	427(23.7)	333(25.3)	
	고	1,014(41.5)	543(30.1)	287(21.8)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	저	854(35.0)	772(43.0)	608(46.3)	191.01***
	중	812(33.3)	713(39.7)	511(38.9)	
	고	774(31.7)	311(17.3)	193(14.7)	

\*\*\* p<.001 \*\*p<.01 \*p<.05

자. 사이버폭력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교차분석 결과 각 집단에 따른 사례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요인들은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사이버폭력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성별, 연령, 경제수준, 8개의 위험요인과 5개의 보호요인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낮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비하여 높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속할 확률은 여자청소년의 경우 0.51배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1.84배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0.81배 낮았다.

위험요인 중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0.82배 낮았고, 비행친구가 있을수록 1.93배,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1.74배,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높을수록 1.58배,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1.27배,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이 높을수록 1.20배 높았다.

반면 낮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비하여 높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속할 확률은 보호요인 중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0.82배, 친구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0.75배 낮았다.

<표 56> 사이버폭력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구 분	B (SE)	OR	95 CI			
			하한값	상한값		
절편	-1.97	0.28				
성별	0.11	0.07	1.12	0.98 1.28		
연령	0.19	0.05	1.21***	1.10 1.33		
낮은 경제수준	0.02	0.07	1.02	0.89 1.16		
사이버 폭력 (중)	우울 및 불안	0.06	0.06	1.06	0.95 1.18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30	0.05	1.36***	1.22 1.51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06	0.06	1.06	0.95 1.19	
	위험 요인	부모 간 갈등	-0.01	0.05	0.99	0.90 1.09
		문제가족원	-0.34	0.13	0.71*	0.55 0.92
		비행친구	0.23	0.11	1.25	1.00 1.57
		학교생활 부적응	0.08	0.06	1.08	0.97 1.20
		지역사회 유해환경	0.25	0.05	1.28***	1.17 1.40
	보호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작곡·적극 대처	-0.12	0.05	0.89*	0.80 0.99

	요인	가족의 관심 및 신뢰	-0.06	0.05	0.94	0.85	1.04
		친구관계	0.26	0.08	1.29**	1.10	1.52
		교사의 관심 및 관계	-0.03	0.05	0.97	0.88	1.07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0.12	0.05	0.88*	0.79	0.98
사이버 폭력 (고)	절편	절편	-2.31	0.33			
		성별	-0.67	0.08	0.51***	0.44	0.60
		연령	0.61	0.06	1.84***	1.63	2.08
		낮은 경제수준	-0.22	0.08	0.81**	0.69	0.94
	위험 요인	우울 및 불안	-0.20	0.07	0.82**	0.72	0.9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55	0.06	1.74***	1.54	1.97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0.18	0.07	1.20**	1.05	1.37
		부모 간 갈등	0.09	0.06	1.09	0.98	1.22
		문제가족원	-0.20	0.15	0.82	0.62	1.10
		비행친구	0.66	0.12	1.93***	1.53	2.44
		학교생활 부적응	0.24	0.07	1.27***	1.12	1.45
		지역사회 유해환경	0.46	0.05	1.58***	1.42	1.76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0.13	0.06	0.88	0.77	1.00
		보호 요인	가족의 관심 및 신뢰	-0.20	0.07	0.82**	0.72
	친구관계		-0.29	0.10	0.75**	0.61	0.91
	교사의 관심 및 관계		-0.01	0.06	0.99	0.87	1.12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0.08	0.07	1.09	0.95	1.24
	-2 Log 우도				8,941.28***		
	Nagelkerke R-제곱			.239			

\*\*\* p<.001 \*\*p<.01 \*p<.05

# V. 결론 및 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비행 태도를 조사하고, 청소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비행 태도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청소년 흉악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청소년비행의 저연령화 및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11세~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5,658명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5,658명의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2,887명(51.0%), 여자청소년이 2,764명(48.8%)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4세 1,036명(18.3%), 16세 908명(16.0%), 17세 825명(14.6%)로 높게 나타났다. 11세 ~13세의 저연령청소년은 1,026명으로 18.2%를 차지하였다.

조사집단의 비행태도 수준 결과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항목이 포함된 지위비행 수준이 1.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허위정보유포, 아이디도용, 신분속임, 불법SW다운로드가 포함된 사이버사기가 1.48점, 욕설/폭언, 해킹, 디지털성범죄가 포함된 사이버폭력 1.43점, 집단따돌림, 심한놀림/조롱, 패싸움, 구타, 협박, 갈취, 절도, 성폭력이 포함된 범법행동 1.31점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비행유형별 태도 수준에서 ‘해서는 안된다.’(‘절대 해서는 안된다’와 ‘해서는 안된다’ 포함)가 높았으나, 지위비행에서는 성관계와 음주,

범법행동에서는 패싸움과 구타, 사이버사기에서는 신분속임, 사이버폭력에서는 욕설/폭언이 ‘할 수 있다’(‘할 수 있다’와 ‘당연히 할 수 있다’ 포함)는 허용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비행태도 수준은 지위비행, 범법행동,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의 전 항목에서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여자청소년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소속기관별 비행태도 수준은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어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비행태도 수준이 가장 높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거나 학교 또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그 다음 순이었다.

연령별 비행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지위비행, 범법행동,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의 전 항목에서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지위비행의 경우 19세의 비행태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위비행 수준이 증가하였다. 범법행동과 사이버사기 수준은 두 유형 모두 16세 평균이 가장 높았고,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16세와 19세 평균이 가장 높았다.

거주인별 비행태도 수준은 지위비행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조부모와만 거주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비행태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어렵다’라고 응답 할수록 네 유형의 비행태도 수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우울 및 불안 평균이 1.9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격성·충동성·부주의의 평균이 1.75점, 학교생활 부적응이 1.61점,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1.52점, 부모 간 갈등이 1.48점,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이 1.33점, 비행친구가 1.05

점, 문제가족원이 1.03점 순으로 높았다.

성별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 수준은 여자청소년 평균이 남자청소년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이 여자청소년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 수준과 비행친구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지역사회 유해환경 수준은 여자청소년 평균이 남자청소년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소속기관별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위험요인의 항목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거나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 유의한 결과를 보인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우울·불안 수준의 경우 18세와 19세 평균이 가장 높았고, 공격성·충동성·부주의와 학교생활 부적응의 경우 18세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과 부모 간 갈등의 경우 19세가 가장 높았고, 비행친구와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경우 18세와 19세 평균이 가장 높았다.

거주인별 유의한 결과를 보인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부모 간 갈등, 문제가족원 요인에서 조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우울 및 불안요인과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은 한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경제수준별 위험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부모와의 갈등관계 및 방임, 부모 간 갈등, 문제가족원, 비행친구, 지역사회 유해환경 요인에서 '매우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은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본 결과, 또래영역(친구관계) 평균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영역(가족의 관심 및 신뢰) 평균이 4.20점, 개인영역(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대처) 평균이 3.96점, 학교영역(교사의 관심 및 관계) 평균이 3.80점, 지역사회 영역(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평균이 3.44점 순으로 높았다.

성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수준이 여자청소년 평균이 남자청소년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 수준은 남자청소년 평균이 여자청소년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친구관계 요인은 성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소속기관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 친구관계,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수준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 소속 평균이 가장 높았고, 가족의 관심 및 신뢰의 경우 초등학교 소속 평균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 보호요인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 · 목표의식 · 적극적 대처의 경우 19세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가족의 관심 및 신뢰의 경우 12세와 13세가 모두 평균이 가장 높았다. 교사의 관심 및 관계의 경우 11세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2세, 17세, 19세 평균이 가장 높았다.

거주인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에서 양부모와 사는 청소년의 평균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관심 및 신뢰요인에서는 양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과 그 외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선후배 등과 거주하거나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친구관계요인과 지지체

계 및 지원프로그램 요인에서는 친척과 거주하는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요인은 그 외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선후배 등과 거주하거나 혼자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경제수준별 보호요인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매우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총 5,658명 중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86.1%로 조사되었다. 연령하향 동의 및 비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동의 사유로는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악용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는 연령 불문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14세 미만 청소년도 범법행위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연령보다는 범법행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 ‘연령보다 피해자 입장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함’,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 범법행위를 반복하게 될 것이므로’, ‘14세로 제한하면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목이 추출되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비동의 사유로는 ‘14세 미만은 중대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거나 실수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판단이 미숙/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보다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 ‘지금 연령이 적당함’, ‘너무 가혹해서’, ‘연령하향이 범죄율 감소의 근본대책은 아니므로’ 등이 추출되었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총 5,658명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만19세)이라하더라도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여야 한다

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86.5%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동의 사유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실현, 피해 보상을 위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기위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국민의 알권리)’, ‘범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므로’,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이므로’ 등이 추출되었다. 비동의 사유로는 ‘가족 및 지인들이 피해를 입으므로’,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숙한 연령이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면 낙인과 차별을 겪게 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범죄 심각성에 따라 공개여부가 달라져야 함’ 등이 추출되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별, 거주인, 소속집단, 경제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위험요인, 보호요인들 중에서 조사 대상 청소년의 비행태도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 청소년 집단 평균을 활용하여 기준점수를 하위 35%, 65%, 100% 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기준점수를 바탕으로 낮은, 중간, 높은 비행태도, 위험요인, 보호요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지위비행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지위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수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위비행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위험요인 중에서는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지위 비행 집단에 비하여 높은 지위 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고, 거주인 중 그 외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선후배 등과 거주하거나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과 비교했을 때 한부모와 거주한다고 응답한 이들일수록 높은 지위 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범법행동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낮은 범법행동 집단에 비하여 높은 범법행동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가 더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수록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위험요인 중 비행친구가 있을수록 높은 범법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낮은 범법행동 집단에 비하여 높은 범법행동 집단에 속할 확률은 보호요인 중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사이버사기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낮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비하여 높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남자청소년의 경우가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이버사기 수준도 높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위험요인 중에서는 공격성 · 충동성 · 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속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유해환경도 다음순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비하여 높은 사이버사기 집단에 속할 확률은 보호요인 중 친구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사이버폭력 수준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 및 보호요인 낮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비하여 높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남자청소년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낮았다.

위험요인 중 비행친구가 있을수록 높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낮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비하여 높은 사이버폭력 집단에 속할 확률은 보호요인 중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 2. 제 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태도 및 비행태도와 관련된 청소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간의 영향을 파악하여 도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정책방향제시, 청소년지원사업으로의 환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청소년 특별교육 및 전문심리상담 지원**

청소년기의 정서적·신체적·인지적·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불균형이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 친구,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비행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소년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청소년기의 단순심리 내지

판단력부족, 범죄적 요소극복의 미숙 등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문명의 발달은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보다 자기중심적 판단요소의 분열을 획책 시킨다는 점도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비행이나 범죄의 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은 후회나 반성의 도덕적 생활방향을 제시함에 앞서 지속적인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 비행청소년이라는 자아개념을 갖게되어 이차적인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

청소년기가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기의 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전문상담지원은 청소년 비행의 진행 양상에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게 된 수용자의 자녀들은 19세 미만 인구의 약 0.5%밖에 되지 않지만 가장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이다.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 이들은 빈곤이나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Wright & Seymour, 2000; Haskins, 2014, 최경옥, 2017), 수치심 등 심리·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다(Wildeman & Turney, 2014). 가정해체나 양육자 변화 등은 수용자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Kampfner, 1995; 이경림·최경옥, 2016). 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감을 목격한 아동은 심리적외상과 같은 심리·정서적 충격을 겪고 있었으며(Lee, 2013; Phillips, 2010), 부모의 수감이 알려지게 되면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타인과 관계형성과 학교생활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Murray & Farrington, 2005). 부모의 수감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아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고(신연희, 2015b). 비행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Murray et al., 2009).

실제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자녀들의 문제

행동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가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자녀에게 미치는 2차적 피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행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항목은 평균적으로 5~7%대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자 자녀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 밖에 있다. 이런 사각지대 속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수용자 자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대학생의 의견이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는 청소년비행 태도의 높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를 포함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상실된 보호요인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 성(性)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성은 청소년 시기의 성적인 감정, 행동, 발달을 가리킨다. 성은 주로 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성적인 행동은 대부분 문화의 풍습, 성적 지향,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법치적인 승낙 연령에 영향을 받는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성관련 정보의 접촉이 쉬워지고, SNS를 통한 음담패설 사용이 늘고 있다. N번방,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등 범위와 수위도 확장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지위비행 중 특히 성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 성교육

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교육 및 전문상담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성 의식을 바르게 갖게 하는 등 성 행동을 합리적이고 인격적이며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예방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셋째,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집단상담, 집중상담 지원 활성화 및 사이버 윤리강령 교육 실시**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늘어나는 등 시간적 공간적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스마트폰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적절히 잘 활용하면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빠져서 사용 빈도나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새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생활 모든 곳에 스마트폰이 자리 잡게 되면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거실에 두고 사용을 감

시할 수 있는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은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사용 시간이나 빈도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워 중독 증상이 심해지기 쉽다. 문제는 이렇게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든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게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기억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 중에서는 유추적인 사고나, 복잡한 계산, 기억력 등에 장애를 보이는 디지털 치매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표류적 현상(drift)이 아니라, 성인기의 범죄행동, 알코올 중독, 반사회적 성격, 분노조절장애, 직장 및 결혼생활 부적응과 같은 역기능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진혜민 외, 2012; 민수홍, 2006)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정도별 교육 및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있는 청소년 중에서 위험사용자군을 대상으로 직접 개인상담을 지원하고 주의사용자군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이외에도 기타 우울증이나 ADHD(주의력 결핍장애)와 같은 공존질환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종합심리검사와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은 사회적 돌봄기관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지원에는 어려움이었다. 이에 직접적인 기관연계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지원대상 청소년 자체발굴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사이버사기의 신분숙임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허용적 태도는 온라인 도박이라는 2차적인 청소년 사이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은 최근 4년간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충청남도는 전국 청소년도박문제 전국평균 대비 2배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도박자금 총당을 위한 학교

폭력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도박관련 집중지원과 사이버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상의 기본적인 정신과 행동강령 및 익명성을 통한 타인의 권리나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 **넷째, 또래관계(친구관계) 개선 사업 활성화**

또래관계기술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 또래 수용이나 인기도 또는 또래 수용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다른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이다. 즉, 또래관계기술은 또래관계 내에서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자 능력이며,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또래로부터의 우호적인 피드백은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만들어 더 많은 또래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반면 또래관계기술의 결핍은 또래집단에서 익힐 수 있는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한하여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로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비행유형 중 지위비행, 범법행동, 사이버폭력에서 청소년위험요인의 비행친구가 비행태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범법행동,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비행유형에서 친구관계가 보호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친구관계)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래관계의 질적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또래상담연합회와 다문화 청소년 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 [ 참고문헌 ]

- 강근모, 이준기. (2015).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잠재적 학업중단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 연구, 148, 1-268.
- 강혜원, 김영희. (2011). 성공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양성평등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0.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 구본용, 유재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8(1), 133-146.
-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 김경식, 이현철. (2007). 청소년 비생의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2), 1-22.
- 김동일, 최수미. (2009). CYS-Net 상담서비스 이용이 위기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3).
- 김보영, 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간호과학회, 39(5).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사회사업, 29.
-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 (2004). 전라북도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의식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상담학연구, 5(3), 725-741.
- 김준호, 김은경. (1995). 법에 대한 태도와 비행. 형사정책연구, 18(3), 887-908.
- 김준호, 김은경. (1995).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64.
- 김준호, 이동원. (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179.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황지태, 박성훈, 최수형. (2018).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노성호. (2005). 청소년 잠재비행의 실제비행화 결정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성호. (2005). 청소년의 비생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논문집, 583-605.
- 노성호. (2006).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화 모델의 검증. 사회과학논총, 22, 57-83.

- 노언경, 정송, 홍세희. (201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  
 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 문동규, 김영희. (2012).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청소년학연구,  
 19(1).
- 민무숙, 김인순. (1999).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  
 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민원홍. (2013).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2004). 형사정책 제11판.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주미, 김도연, 김은영, 강석영, 허지은, 두진영. (2010). 자살을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SOS북-청소년 자기성장 지침서2.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2010.
- 송성철, 천영심, 조동기, 이경주, 류재석, 권혁규. (2020). 2019 범죄백서. 충청북도:법무연수원.
- 송지영, 박성연. (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3).
- 신연희, 강정은, 박선영, 여연심, 이경림, 최경옥. (2017).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신연희. (2015).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출소준비 수형자  
 및 출소자 대상 조사. 한국아동복지학, 51.
- 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285.
- 유영준, 오윤수. (2013). 청소년 위험요인이 위기결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1(4).
- 유인선.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요인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림·최경옥. (2016). 이 땅에서 수용자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비스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0(1), 159-196.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 특성에 관한 고찰: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 가능성을 중  
 심으로. 형사정책, 15(2).
- 이상균. (2000). 청소년의 학교 비행에 대한 생태체계적 양향요인. 사회복지연구, 15(1).
- 이석형. (200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3(1)
- 이석형. (2008).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타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 이성대, 염동문, 김서정.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력의 매  
 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55-75.
- 이성식. (201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정, 학교, 친구요인과 그 심리적 매개요인들의 작용  
 -주요 세 비행이론들의 검증. 형사정책, 23(2), 121-142.

- 이종원, 이순래, 정윤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주리. (2011). 기초연구:부모 및 친구애착과 비행 간 관계: 종단연구. 놀이치료연구, 15(2).
- 이해경. (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4).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 이혜순, 옥지원. (2012).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우울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9(3).
- 이혜은, 최정아. (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 전영천. (2010). 청소년의 음주행동 및 흡연행동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1).
- 정누리. (2019). 청소년의 비행태도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묘순, 서수균. (2014).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5(2).
- 정부만, 남팔근, 이성준, 박종범, 권연정. (201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익중. (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 \_\_\_\_\_. (2010). 비행또래집단과 청소년비행 간의 종단적인 역동적 관계. 사회복지연구, 41(1), 119-144.
- 진혜민·배성우(2012), “청소년비행 관령변인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193-221
- 천정웅, 남부현, 김삼화. (2012). 청소년 멘토링. 파주:양서원.
- 최경옥. (2017). 수용자자녀의 양육실태 및 성장환경과 개선방안-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1(3), 182-214.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 한상철. (2005). 청소년학. 서울: 학지사.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 허균. (2012). 초기 청소년의 게임사용 변화궤적과 자기통제력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 연구. 컴퓨터 교육학회 논문지, 15(3), 71-80.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청소년상담연구, 196.
- 황혜원, 손병덕. (2006). 보호소년들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대한 지각이 비행과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1).
- Agnew, R. (1992). FoundationforaGeneralStrainTheory of Crimeand Delinquency" In *ClassicsofCriminology*(3rd edition), edited by Joseph E. Jacoby. pp. 224-234. Long Gove, Illinois:Waveland.
- Blum, R. (1998). Healthy youth development as a model for youth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2(5), 368-375.
- Bronfenbrenner, U. (1979a).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h Press.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e, N. (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Garnezy N. A. (1990). closing note: Reflections on the future. In: Rolf J, Masten A, Cicchetti D, Nuechterlein K, Weintraub S, editor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0, 527-534.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 (1990). *A General The General Theore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skins, A. R. (2014). Unintended consequences: Effects of paternal incarceration on child school readiness and later special education placement. *Sociological Science*, 4(1), 141-158.
- Hirschi, Travis.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rowitz, F. D. (1987). *Exploring developmental theories: Toward a structural/behavioral model of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Johnson, G. M. (1997). Teachers in the inner city: Experience-based ratings of factorsthat place students at risk. *Preventing School Failure*, 42(1), 19-27.
- Kampfner, C. J. (1995).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in children of imprisoned mother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89-100.

- Lee, R. D., Fang, X., & Luo, F. (2013). The impact of parental incarceration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Pediatrics*, peds-2012.
- Lerner, R. M. (1991). Changing organism context relations as the basic process of development: A developmental-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7-32.
- Merton, Robert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 Murray, J., Farrington, D. P., Sekol, I., Olsen, R. F., & Murray, J. (2009). Effects of parental imprisonment on child antisocial behaviour and mental. *Campbell Systematic Reviews*, 4, 1-105.
- Phillips, S. D., Dettlaff, A. J., & Baldwin, M. J. (2010).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ange of implications of families, criminal justice system involvement in child welfare cas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4), 544-550.
- Pollard, J. A., Hawkins, J. D., and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8), 145-158.
- Wildeman, C., & Turney, K. (2014). Positive, negative, or null? The effects of maternal incarceration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Demography*, 51(3), 1041-1068.
- Wright, L., & Seymour, C. (2000).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separated by incarceration: A handbook for child welfare agencies.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 부록 ] 설문지

2020년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연구조사

# 설문지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에 대한 연구, 상담, 보호, 긴급구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청소년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은 시험이 아니므로 맞고 틀리고의 답이 없으며 성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름을 쓰지 않고 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설문지는 학교, 기관, 보호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한 항목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옆 사람과 의논하거나 이야기하지 말고 보여주어서도 안 됩니다.
2. 자신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표시하되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 하세요.

2020년 7월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해주세요.

	질문내용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7	청소년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8	청소년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종교행사 등에서 한 모금 마시는 정도는 제외)	①	②	③	④
9	청소년이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 것(무단결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0	청소년이 하룻밤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1	청소년이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2	청소년이 다른 친구를 따돌림(왕따)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3	청소년이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비웃고 깔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4	청소년이 단체로 모여 싸우는 것(패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5	청소년이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6	청소년이 다른 친구에게 겁을 주며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협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7	청소년이 다른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8	청소년이 다른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19	청소년이 성폭행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20	청소년이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를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질문내용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21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22 청소년이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를 속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23 청소년이 불법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24 청소년이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25 청소년이 다른 사람 컴퓨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26 청소년이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27 <u>촉법소년</u> 나이를 현행보다 낮추어야한다 ※촉법소년: 만 14세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①	②	③	④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8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만19세)이라 하더라도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여야한다	①	②	③	④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 해주세요.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1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늘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33	이유 없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4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①	②	③	④	⑤
35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7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다른 사람과 치고 박으며 잘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⑤
40	화가 나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41	화를 내는 것(위협이나 폭력)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2	생각 없이 말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	①	②	③	④	⑤
46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8	부모님과 나는 말만하면 싸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9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0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①	②	③	④
51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2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3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①	②	③	④
54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55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①	②	③	④
56	나는 학교가 싫다.	①	②	③	④
57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성인용 주점) 등 유흥업소가 많다.	①	②	③	④
58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59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세요.

문항 내용		없다	있다
60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①	②
61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①	②
62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①	②
63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①	②
64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①	②
65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①	②
66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7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①	②	③	④
68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①	①	②	③	④
69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70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①	②	③	④
71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①	①	②	③	④
72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①	①	②	③	④
73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①	①	②	③	④
7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①	①	②	③	④
75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①	①	②	③	④
76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①	①	②	③	④
77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78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79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80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81	우리 동네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청소년정책 연구조사  
충청남도 청소년비행 태도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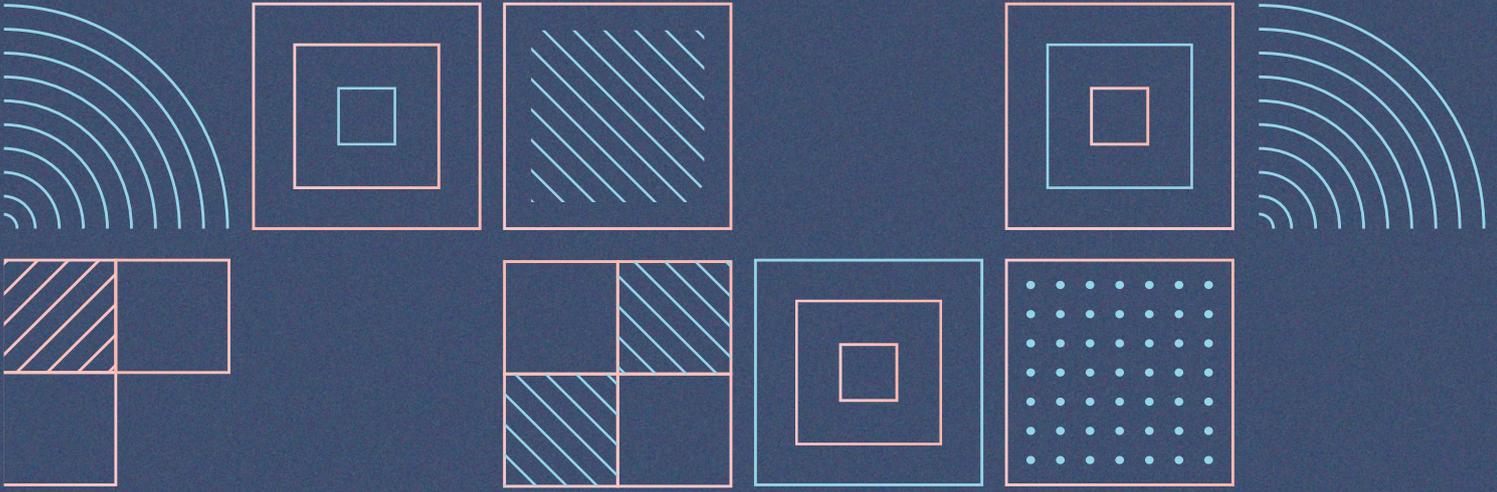
---

인 쇄 2020년 12월

발 행 2020년 12월

발행인 박영희

발행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31100)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대연빌딩 3층 꿈드림  
Tel.(041)554-2130 / Fax.(041)556-8704  
<http://cnyouth.or.kr>



2020년 청소년정책 연구조사

**충청남도 청소년비행 태도에 관한 연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31100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대연빌딩 3층 꿈드림  
Tel.(041)554-2130 Fax.(041)556-8704

<http://cnyouth.or.kr>

비매품 \*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